

##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전국 최초 개소... 일상회복까지 지원

### 15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본격 운영, 남성 피해자 시설도 운영

#A씨(23세)는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부터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전 남자친구가 헤어질 수 없다며 하루에 100통 넘는 전화와 카톡을 보내고, 수 차례 집 앞으로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겠다고 협박도 했다. 몇 달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A씨는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집을 아는 전 남자친구를 피해서 집을 나와 친구 집과 모텔을 전전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전 남자친구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절실했다.

서울시가 주거침입 같은 위협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전용 보호시설 3개소를 전국 최초로 마련,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02-1366(24시간)에 연락하면 시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남성 피해자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2653-1366(10시~17시)에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안내를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CCTV, 112비상벨 같은 안전장비를 갖춘 공간에서 안심하고 머물면서 출퇴근, 외출 같은 일상생활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같은 심리치료를 병행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 전용 시설이 부재했던 점에 착안해서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성했다.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설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안전도어락 설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했다. 또한 시설 주변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서울시는 경찰의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내·외 CCTV 설치 및 방범창, 안전도어락 설치 등 시설의 안전을 보강했고, 경찰은 보호시설 주변 집중 순찰구역·탄력 순찰지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보호시설 순찰 강화에 협조한다.

위급상황 시 경찰출동이 가능한 112비상벨과 안심이비상벨을 설치하고,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안심이 앱, 스마트 초인종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를 제공해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 조치 시스템을 마련했다. 실내 인터리어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했다.

112비상벨은 신고 시 서울경찰청에 바로 신고가 접수되며 쌍방향 통화를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안심이 비상벨은 벨을 누르지 않아도 "살려주세요"를 외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긴급 호출을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입소자는 외출 시 안심이 앱의 귀가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활용해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도 지원받아 외출 시 가해자의 주변 배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치추적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출퇴근 등 기존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에

게 별도 휴대폰을 제공해서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설 전문가 등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특화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전에 변호사의 법률자문 검토도 완료했다. 운영 매뉴얼에는 입소 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 위급 상황별 대처방법, 시설 주변 모니터링 방안, 외출 시 대응요령, 사전 정기 모의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스토킹 피해 특 징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 생기는 것도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3곳 중 1곳을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로 운영한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의 경우 별다른 보호시설이 없어 노숙인 보호시설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입소자들은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10회기)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스토킹 피해에 폭넓은 이해와 상담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가 시설로 직접 찾아가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스토킹 피해가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공간이 절실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스토킹 피해 경험조사'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장소로 '집'(27.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 유형은 '하지 말라고 표

현했음에도 계속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받았다'(16.8%),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쳐다본 적이 있다'(11.8%) 순이었다.

'스토킹 피해 경험조사'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시민 2,013명을 대상으로 14일간('22.6.13.~6.26.) 실시했다.

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은 21.1%(425명),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은 23.2%(468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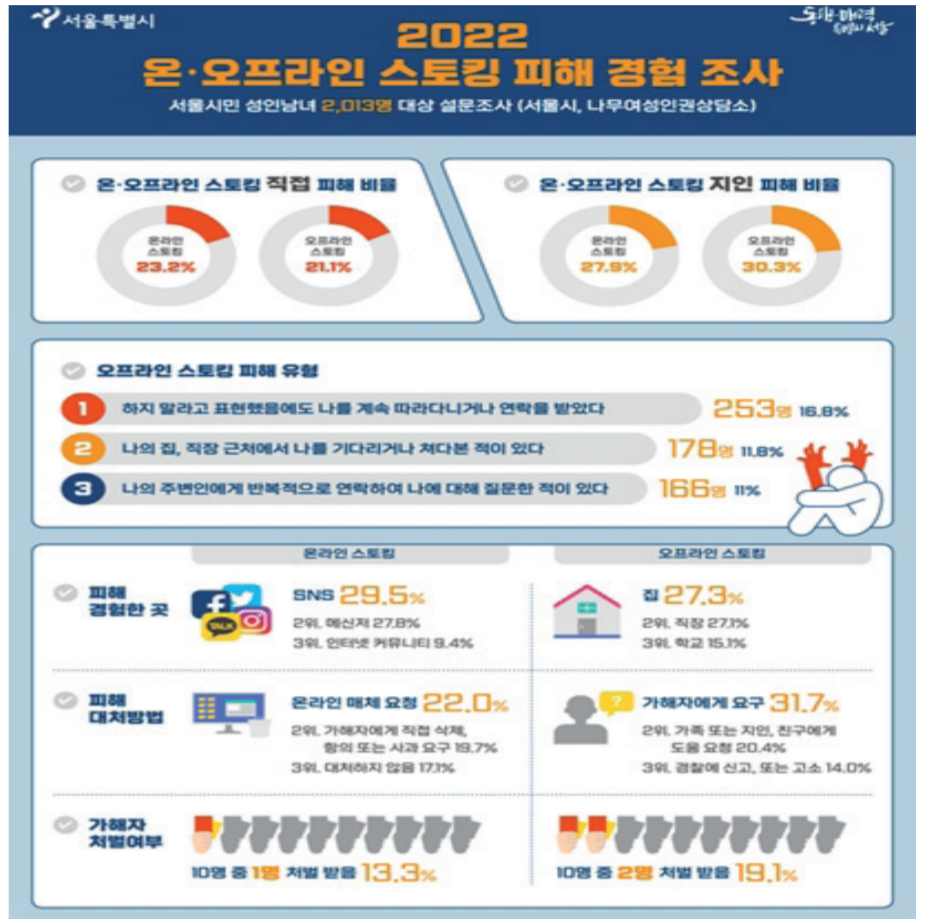
스토킹 피해자들은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을 통해 '계속 피해 경험이 생각남(15.9%)', '불안 또는 우울(13.8%)', '죽고 싶다는 생각(3.6%)'이 든다고 응답했다.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대처방법은 가해자에게 직접 요구하거나(31.7%), 가족 또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20.4%)가 많았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방법을 몰라서(20.7%),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18.5%), 보복이 두려워서(16.3%) 순이었다.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 후 가장 필요했던 도움으로는 주변의 위로와 지지(21.9%),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및 지원(19.1%),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대응(18.4%) 순이었다.

조사 결과, 스토킹 피해자들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응방법을 잘 모르고,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특성상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전화 한통이면 법률, 심리,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긴급 핫라인(비상직통전화)을 통해 접수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지원제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한다.

출·퇴근길이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경호인력을 활용한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길부터 시작해서 경호 범위와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경북도, 동해 숨은 보석 마린머드로 해양신산업 육성

경북 동해안에 산재해 있는 마린머드(해양점토)가 새로운 해양신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여 진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형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경북도·울진군이 후원하는 해양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양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동해안 마린머드 소재 산업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동해 해양점토의 지질자원화와 동해 마린머드 내의 해양미생물 활용 가치, 동해 해저(후포분지) 청정 마린머드 개발과 산업화 전략이라는 세 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해안 마린머드 소재개발과 산업화 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천연머드를 온천수나 해수와 오랜 시간 반응시켜 약리적 효능이나 화장품 기능을 갖게 만든 펠로이드는 유럽과 남미에서는 이미 테라피 산업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해양머드를 활용한 뷰티, 테라피 산업은 인간 건강의 질을 중시하

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사해머드는 이미 브랜드화해 머드팩, 화장품, 테라피 용도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알래스카 빙하머드도 출시되고 있어 뷰티, 테라피 산업에서 해양머드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북 동해안의 후포분지는 일명 '왕돌초'로 알려진 후포퇴가 퇴적물의 이동을 막고 있는 해저 지형으로 양질(평균 10μm)의 머드가 대량 부존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질자원연구원 포항센터는 후포분지 일대에만 30억톤 이상 마린머드가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동해 마린머드의 품질과 안전성 평가, 사업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은 바이오, 테라피, 뷰티, 메디컬, 미생물 상용화 등의 산업화로 연계해 나갈 경우 수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우리 정부도 해양신산업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고,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면서, "오늘 포럼을 계기로 해양신산업 육성에 한 걸음 더 전진이 있기를 기대하고, 환동해 지역 마린머드 바이오소재 산업화를 위한 실증플랫폼 구축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 윤석열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 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를 20조 원을 투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적 기한을 열흘 이상 넘기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민생이 걸려있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화물 연대 집단 운송 거부 기간 이루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 것이라며,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 발간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 양성평등센터가 성인지적 자치법규를 위한 업무지침서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려면 제·개정 시 성인지관점을 적용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성별영향평가법'상 그 대상이 지자체가 제정 보

는 개정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한정돼 더 많은 수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의회 전문인력 등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시에도 자치법규의 성차별 요소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서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총 84쪽의 책자는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쉽게 설명한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점검 포인트와 개선 필요성 ▲성인지관점으로 개선한 자치법규 우수사례 ▲자치법규 성평등 용어 사전 등으로 구성했다. 이용자가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 없이도 성인지적 개선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에서 성인지관점으로 개선한 자치법규

우수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허순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만큼 성인지관점 적용이 필수적"이라며 "책자를 통한 사전 점검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과 제도들이 더욱 성평등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 보이스피싱 방지 조례 원안가결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12일과 13일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3,844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2,611억 원(12.30%)이 증액된 규모다. 증액사유는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반영, 시군조정교부금, 공자기금차입금원금상환 등이며, 감액사유는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이다.

양일간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연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각종 용역 등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미리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둔 사업운영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안건 심사에 있어서는 도내 고령자·장애인·어린이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증진을



위해 이선희(청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병근(김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또한,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무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하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사무임에 따라, 당초 건설도시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도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서 시정·처리 21건, 건의·촉구 82건 등 총 103건의 지적사항을 통해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개선 및 대안책을 제시했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올 한해도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녹록치 않은 한해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면서, "내년에도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흥시의회가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흥시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61억 9,700만 원 증가한 1조 5,382억 7,200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성훈장, 박소영, 박춘호, 김선옥, 윤석경, 김진영, 한지숙 의원 등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에 김진영 의원을 선임했다.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부위원장에 윤석경 의원을 선임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 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보건소, 시흥도시



공사, 기획조정실, 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제부 일정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는 1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맑은 물사업소, 복지국, 안전교통국 등 4개 국, 16일에는 평생교육원, 혁신성장사업단 등 5개 국, 19일에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등 6개 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57만 시흥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결산특위 위원들과 책임감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우용/기자

#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수정가결"

## 13일, 10조 7,307억 원 규모 예산안 예결위 통과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대구광역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제출예산액 대비 112억 원이 감소한 10조 7,30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예결위 심의 첫날 정책질의회에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 육성, 대구 시 산업인프라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연계 모빌리티산업 육성 관련 추진사항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최수원 이전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등 시민들과 약속한 지역 현안 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 충분한 소통을 중심으로 한 보다 세심한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이후 종합심사에서는 코로나19이

후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민선8기 대구시의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내실 있는 재정운동을 위해서 재무관리 뿐 아니라 지역경기회복 등을 위한 시급한 현안과 민생사업들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며, 대구시의 건전재정정책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이 단순 재무감축과 예산삭감에 치우친 부분은 없는지,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나 시민들의 생계와 복지에 직결된 민생예산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했다.

특히, 선심성이나 일회성의 예산낭비는 없는지, 관례에 따라 무책임하

게 편성한 방안한 예산은 없는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검토하고 따진 결과 일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시급한 민생과 복지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대구시 제출예산액 대비 총 112억 원을 감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은 "내년도 대구시 예산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일상의 곳곳에서 재정의 온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했다"면서 "우리 시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고 지역경제가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회,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 참석

## 정운경 의원, 이해형 의원, 문병근 의원, 장민수 의원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이해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4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개최된 『2022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그동안의 경기여성거버넌스의 활동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세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경기도민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고, 현장 활동을 통해서 발굴한 의견을 민·관·학의 협의과정을 거쳐 정책화해온 경기여성거버넌스의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의 활동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여성거버넌스는 경기도 여성가족정책분야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구축됐으며, 올해는 지난 9월부터 출범한 2기 123명이 활동 중이다.

공공의제에 있어서 경기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민이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생산자로서 그 주체성을 가지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도민 92명, 학계전문가 10명, 시군여성회관 16명, 공무원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여성거버넌스는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여성정책 분과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가족 분과는 1인가구 지원, 돌봄 분과는 아동·보육 등 돌봄에 대한 정책발굴 및 현장조사를 맡고 있으며, 시군 분과는 여성가족

기관 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을 담당한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정책조사가, 하반기에는 정책발굴 및 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운경, 이해형, 문병근, 장민수 의원은 경기여성거버넌스가 여성·가족·돌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회도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도민의 생생한 현장 민심을 파악하는데 앞장서 노력할 것을 밝혔다.

한편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에는 거버넌스 활동가 60여명을 비롯하여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가족국 등이 참석했다.

조혜영/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호연 시의원, 2022 대한민국 환경 ESG 공헌대상 수상

서호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이 지난 12월 구로구민회관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환경 ESG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 우수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을 주관한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총재 이상권, 중앙회장 도선제)는 2003년 6월 설립된 비정부기구(NGO)로 환경에 대한 범국민의식을 고취하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환경단체이다.

서호연 서울시의원은 지구환경과 대한민국의 자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보전에 앞장서며 국민의식을 고취 시키고 환경개선 공헌 부문에서 위상을 높인 공을 인정받아 2022 대한민국환경ESG 공헌대상 시의정활동 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호연 의원은 시민 생활의 권익 향상과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도시 건설과 구로구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애써오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구로구의 낮은 공원녹지율을 지적하며 서부간선도로 덮개공원 설치를 통한 녹지공간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서호연 의원은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서울시 환경 정책들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난 9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3일 제31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는 부산시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을 했으며, 국토교통부 심의절차를 거쳐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8호(2022.11.29.))됐다.

이에 부산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해당 상임위 소속인 서 의원이 조례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이다.

본 조례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시작으로 부산시에서도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지구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

련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의 임시운영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면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선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한발 다가서게 됐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자율주행서비스를 도입하고 정

밀도로지도 제작, 관제시스템 구축 등 실증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며, 계획되어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지를 시작으로 옐로델타시티 등 부산 전역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산업을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종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선 (112) 문화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 (113) 부동산부:대선 (117)  
 경제부:대선 (114) 오피니언부:대선 (118)  
 스포츠부:대선 (115) 지방부:대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셋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국내 최초 아트북 기반 공공복합문화공간 '서울아트책보고' 14일 개관

아트북 1만5천여권 소장, 시민 누구나 아트북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국내 최초 아트북(예술책) 기반 공공복합문화공간인 서울시 '서울아트책보고'(고척스카이돔 지하 1층)가 한달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2월 14일 개관한다. 일반 시민부터 예술 관련 전공자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아트북(예술책)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아트북'은 책과 미술이 결합되어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책의 종류다. 그림책, 팝업북, 사진집, 일러스트북, 미술작품집 등이 아트북의 범주에 속한다. 독자들은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아트북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경험을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받기도 한다.

'아트북'은 대부분 고가의 서적으로 시중 서점에서는 대부분 밀봉하여 관리하고, 아트북 관련 시설은 대개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여 그동안 일반 시민들이 아트북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아트책보고는 주변 문화·예술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남권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고척스카이돔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고자 했다.

국내 최초의 동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은 1년 내내 프로야구경기와 대형 공연이 펼쳐지는 서울의 랜드마크지만, 지하 1층 공간은 지난 2016년

푸드몰 운영 중단 이후 장기간 비어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고척돔 지하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서남권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개선을 위해 이 공간을 '책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했다.

지하공간특성상 낮은 층고, 많은 기둥, 넓고 긴 중앙복도 등의 공간적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아트책보고'의 공간 전체를 탁트인 '열린 공간'으로 설계했다.

시는 지난 한달간(11.14.~12.13.)의 시범운영을 통해 하루평균 1천여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만큼 서울아트책보고가 서남권의 대표 시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아트책보고를 찾은 시민들은 주중 11시~20시까지, 주말 10시~2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및 설·추석 명절은 휴관한다.

서울아트책보고를 찾은 시민들은 서울아트책보고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아트책보고에는 다종·다량의 아트북이 비치됐다. 유아·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부터 예술에 첫 걸음을 떼는 시민을 위한 기초 예술 입문서와 예술 분야 전공자를 위한 전문서까지 마련해 모든 연령대

의 시민들이 아트책을 폭넓게 누릴 수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국내 그림책과 해외 유명 팝업북, 아트북 희귀본 및 절판본, 각종 사진집과 미술작품집 등 1만 5천여 권의 아트북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오랜 역사를 지닌 아트북들이 눈에 띈다. 프랑스의 화가 마리로랑생의 오리지널 석판화와 동판화가 삽입되어 있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1930년 초판본)와 '우아한 향연'(1944년 초판본), 살바도르 달리의 석판화가 수록되어 있는 '노인과 바다'(1974년 초판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아트북 갤러리에서는 아티스트, 예술단체, 출판사 등 다양한 전문가·기관과 협업해 예술과 책을 주제로 한 전시를 개최하고 워크숍 등에는 예술과 책에 대한 다양한 강연, 체험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된다.

단순히 책을 보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아트북 전문서점도 만나볼 수 있다. 디자인·영화·미술·여행·건축·공연 등 특색있는 11개의 전문서점을 통해 현장에서 도서와 책 관련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전문서점에서는 단순판매 뿐 아니



라 큐레이션 전시공간을 통해 각각의 특화된 분야를 살린 책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열릴 예정이다.

아이와 함께 서울아트책보고를 찾는 엄마·아빠가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아트북 체험공간 내 '서울엄마아빠VIP존' 1호를 지정해 3,500여 권의 세계그림책 및 1,000권의 디지털그림책을 비치하고 구연동화·공예 체험 등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엄마·아빠는 VIP존 옆 공간에서 아트북을 체험하거나 휴식이 가능하

최한다. '아트북을 열다, 새로운 상상을 펼치다'를 주제로 한 개관식에서는 다양한 개관 기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아트책보고 곳곳에서는 아트북 갤러리 - 개관 특별 전시, 체험공간 - 그림책 동화구연, DIY 체험활동, 워크숍 공간 - 미술평론가 강연, 북카페 열린책대 - 가족 뮤지컬 '겨울이야기' 등 책과 문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교수인 강애란 작가의 '라이팅북'을 활용한 특별전시 'Luminous Art Book Project '그 찬란함의 기록''와 입체책(팝업북)을 주제로 한 'The Magic '팝업북의 세계'' 전시를 내년 2월 19일까지 열린다.

주용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아트책보고'는 국내 최초의 아트북 기반 공공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동안 이용이 어려웠던 아트북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며 "아울러 '서울아트책보고'가 서울시 최초의 '서울엄마아빠 VIP존' 1호점이 된 만큼, 앞으로도 엄마아빠와 아이들 모두가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경수/기자

## 금천구,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 4년 연속 우수자치구 선정

학교, 어린이집, 양로원 등 15곳에 총 1,270㎡ 규모 텃밭 조성



금천구는 서울시 주관 '2022년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자치구로 선정됐다.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시농업 분야 사업 실적인 △도시텃밭 조성·관리 △도시농업 예산확보·집행 △도시농업행사 추진 △기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안전성 검사) △서울농부포털 참여율 등에 대해 실시됐다.

금천구는 올해 학교, 어린이집, 양로원 등 15곳에 총 1,270㎡ 규모의 텃밭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해명양로원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자리학교에는 지역주민들도 함께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유텃밭을 조성해 주민들이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양천 농촌풍경길에 생태텃밭을 확대 운영해 주민들에게 불거리와 도심 속 농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상자 및 반려 텃밭 보급, 치유텃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00여 명의 주민들이 도시농업을 체험하도록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농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천구에서 다양한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해 4년 연속 도시농업 우수자치구로 선정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찬식/기자

## 서대문구 드림스타트와 함께하는 즐거운 겨울

서대문구가 이달 15일 시작해 약 한 달 동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위한 다양한 겨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동의 체력 증진과 창의력 함양, 가족 간 유대 증진을 위한 5개 프로그램에 544명의 아동과 보호자가 참여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농구 교실(10명) ▲가족 목공 체험(20명) ▲크리스마스 화분 만들기(131명) ▲크리스마스카드 전달(183명) ▲가족 요리(200명) 등이다.

앞서 구는 이달 10일에도 연희동에 위치한 우드포유 협동조합에서 드림스타트 가족을 위한 '뚝뚝뚝뚝

목공 교실'을 열었다. 10가정 21명이 가족별로 강사의 도움을 받아 의자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 참여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고 함께 만든 의자를 볼 때마다 오늘의 추억이 생각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철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개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 안전 최우선 서초... 민선8기 첫 예산 8,530억 원 편성

올해보다 592억 원 증액...수방대책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1억 원, 제설대책 16억 원 늘려 구민 안전강화

서울 서초구는 민선8기 첫 내년 예산을 서초구의회 의결을 거쳐 8,5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592억 원(7.5%)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가 8,015억 원, 특별회계는 515억 원이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일상 유지 △민생경제 △청년인재 양성 △약자와의 동행 △도시인프라 조성 등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서초'"

먼저 구는 수방대책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21억 원, 제설대책에 16억 원을 대폭 늘려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에 힘썼다. 구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수방대책 및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초를 위해 수방대책운영(7억 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24억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47억

원), 빗물받이 신설 및 세정공사 등(20억 원)을 편성했다. 또, 디지털트윈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13억 원)에 투자해 다중이용시설에 재난상황대비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생도시 서초" 구는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해 총 137억 원을 편성했다. 자영업자 초스피드 대출(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대출(40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된 양재천길 로컬브랜드화사업(10억 원) 등 골목시장 황금시대를 연다.

"청년인재 양성 적극 지원하는 청년도시 서초"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및 우수한 지역맞춤형 청년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을 이끌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서초 청사

진 아카데미 등 청년능력개발에 10억 원의 예산 등을 편성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동,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도시 서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총출한 지원책을 마련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한다. 아동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1:1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서리풀 샘' 운영(14억 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22억 원),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종합 포털을 구축해 '청년센터'를 만든다. 또, 안전한 출산 복지환경을 위해 '양재모자 건강센터'를 내년에 개관해 임신부터 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사중후군 관리 대상을 만 64세에서 만 84세로 확대하는 '대사플러스 20' 사업을 신설해 액티브 시니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면산 무장애숲길 조성에 50억 원을 투자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에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SOC 및 도시인프라 조성하는 미래도시 서초"

구는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생활SOC 및 도시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서울시와 협력해 추진하며 상부 및 주변공간 활용계획 및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7억 원을 편성한다. 또 양재 일대를 AI특구와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기업과 청년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양재 AI 미래 융합지구'로 만든다.

이외에도 문화예술도시 명성에 걸맞게 서리풀악기거리와 반포대로변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내년 개관하는 방배숲도서관에 디지털도서관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내년 예산은 구민들의 생활불편은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마련했다."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송파구 최초! 구민의 발 마을버스 15일부터 운행 개시

마을버스 3개 노선(송파01, 송파02, 송파03) 15일 06시부터 운행 시작

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지하철 9호선 연장개통 등 주변 교통 여건 변화로 구민의 발이 되어줄 마을버스 수요가 급증해 왔다.

이에 서강석 구청장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을버스 신설'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운영역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림피아공원 주차장 일부를 차고지로 사용가능하도록 제시하는 등 마을버스 조기 개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5일 06:00부터 마을버스 공식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구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

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송파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신설하는 3개 노선을 운행하는 총 9대 마을버스 중 신형 5대 모두를 저상버스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3.9%(2021년 기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송파구는 마을버스의 60%를 저상버스로 도입한 셈이다.

개통 하루 전인 14일 오전 10시에 마을버스 송파01번 기점인 오금동 송파레미니스아파트 버스정류장(24912) 앞에서 마을버스 개통식을 개최한다.

개통식에는 서강석 구청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및 주민대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본행사 종료 후 참석자 모두 함께 마을버스 시

승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마을버스 개통으로 오금-문정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의 교통거점지역(지하철역) 접근성이 개선되고, 삼전-문정-장지동과 수서고속철도(SRT)역 환승센터 구간 교통공급망이 확충되어 송파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버스 신설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역사적인 순간을 주민들과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송파구의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선하는 등 송파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새마을의 헌신적 봉사활동은 주저않고 싶은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 용인특례시, 2022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유공자 48명에 표창 수여

용인특례시는 1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2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용인시 새마을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춘연 용인시 새마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새마을 지도자들은 사랑을 통해 주저않고 싶은 분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며 "새해에도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는 훌륭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무료급식소 운영, 김치 담그기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해 온 새마을지도자 48명에게 유공자 표창이 전달됐다. 올해 사업과 봉사활동 등을 평가한 결과 포곡읍 새마을회가 2022년 최우수 새마을회로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용인시장상, 용인시의회의장상을 받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춘연 용인시 새마을회장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

는 모든 새마을 회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용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용인시 새마을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도 철

학자 '비노바 바베'의 저서 '사랑의 힘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에서 '사랑은 전기 에너지, 믿음은 그 전기 에너지를 통하게 하는 스위치'라는 내용을 인용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새마을 정신에 대한 지도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전기 에너지를 통하게 한 스위치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용인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주셨다"고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이 시장은 "새마을 지도자들은 사랑을 통해 주저않고 싶은 분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며 "새해에도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는 훌륭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조혜영/기자

# 시흥시, 대야동 한울어울림센터 개소 주민과 주민 있는 화합 공간 활짝



시흥시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간 소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교육 거점 공간을 제공하고자 '대야동 한울어울림센터'(시흥시 대야동 대곡안길 69-1)를 조성해 문을 열고 14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대야동 한울어울림센터' 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대야동 한울타리 마을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주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울림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 대야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활력이 더해지면서 속도를 낸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7억(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을 투입해 당초 노후 건축물이 있던 부지를 2020년 매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지역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지난 6월에 준공을 마쳤다.

'대야동 한울어울림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305㎡ 규모로, 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카페 및 공유 주방(1층) ▲주민학습공간(2층) ▲주민공동체 활동공간 및 협동조합 사무실(3층)로 구성됐다.

개소식에는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해 송미희 시흥시의회의장, 이상훈 시의원, 김학민(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대야동 통장협의

회장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주민과 소통·교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소식은 대야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동을 넘어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설립된 '한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유철)'에서 주관했다. 이로써 참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뿐 아니라, 주민이 어울림공간을 직접 운영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자생 구조를 구축하는 시흥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맞이하는 대야동 한울어울림센터는 주민과 주민을 잇는 '화합의 공간'이자 '교육·문화의 공간'으로 자리해 지역사회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는 거점 공간이 될 전망이다.

개소식에 참가한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건축설계를 통해 조성된 대야동 한울어울림센터는 대야동의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활력 회복을 통해 시민 행복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우영/기자

# 화성시,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화성시는 14일 오는 2032년까지의 관광종합계획을 담은 '화성시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화성시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박민철 문화관광교육국장을 비롯해 화성시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4월부터 9개월간 용역을 진행한 여가공간연구소는 지역 관광자원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다채로운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 화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여가공간연구소는 특히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지이자 체류형 종합관광

지 도약이 필요하며 서해안 관광벨트 육성과 제주도 대표관광지의 명소화가 필요하다고 추진전략을 내놨다.

이어 화성시의 다양한 로컬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여가·유희형 관광자원강화와 역사·문화·체험 관광콘텐츠를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및 관광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평가공간연구소는 이와 함께 ▲국평항 낙조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 ▲제주도 보행 친화점 조성 사업 ▲화성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술형 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 총 사업비 2,800억, 26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제시했다.

양시현/기자



# 길거리 널브러진 간판들...파주시,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안전 점검

### "시민 안전 파주시가 책임진다"

수년째 이어진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침체돼 폐업하는 점포들이 속출하면서 도심 간판들이 흉물로 전락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면 언제든지 시민들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위험을 안고 있다.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파주시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매월 주기적으로 도심 간판을 점검하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안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곳곳에 녹슨 간판들을 구석구석 찾아내고,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고층 건물은 드론을 활용하여 낱낱이 살폈다. 파주시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공영방송 KBS를 비롯해 곳곳의 언론매체에서 소개됐다.

전국 처음으로 매월 4일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드론 활용 우수사례

파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고물 안전점검단을 구성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월 4일을 '광고물 안전점검 day'로 정하고 길거리에 널브러진 간판들을 점검했다. 공무원 6명과 재난방재단 20명으로 꾸려진 안전점검단은 현장에서 간판들이 떨어질 위험은 없는지 같은 사고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한여름 번번이 반복되는 태풍피해와 이로 인한 간판 추락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었다. 안전점검단에는 추가로 드론 파일럿 2명도 포함됐다. 기술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을 간

판 점검에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는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한 파주시 노력은 국가 위기와 관련한 디지털 아이디어 공모전에 당선되며, 행정안전부 행사에 초청됐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 행사였다. 디지털 시대대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광고 전달이라는 간판의 1차원적 목적을 뛰어넘어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함께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눈으로 확인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시간, 인력, 예산 등 점검의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점검은 담당자가 옥상 난간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추락 위험이 있었고, 일부 건물의 경우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곳은 점검하지 못했던 제약이 있었다. 파주시는 드론 점검으로 ▲육안으로 찾아내지 못했던 안전 사각지대 확인, ▲신속한 점검으로 예산 절감, ▲점검자의 안전 확보 등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참신한 변화와 혁신 기술, 담당 공무원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나면서 시민 안전의 새로운 방안이 추가됐다. 파주시의 색다른 시도에 전국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영방송 KBS에서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안전 점검을 했다고 전한데 이어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김포시, 평택시, 충북도청 등 다른 지자체들도 벤치마킹과 문의가 이어졌다.

10명 중 3명만 안전 응답...김경일 시장 "시민 안전 책임진다"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 3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의 현주소였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이어 이태원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극에 안전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바람은 파주시에도 닿았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 11월 파주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한 뒤 "시민 안전은 파주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한 민선 8기 첫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존재 이유"라며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했다.

'시민 중심 더 안전한 파주'

김경일 시장만의 사회안전망 구축 의지다. 파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해 옥외광고물을 안전 점검한데 이어 찾아가는 안전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경일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모든 안전 시스템을 제점 점검하겠다고 약속하며 첫째도 둘째도 시민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한영기/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실시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13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중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사업'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일구 대부분동 방아머리항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결위의 박태순 위원장을 비롯해 이진분 부위원장과 한갑수 위원, 안산시 해양수산과 관계자 등이 활동에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활동에서 시 집행부의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타당할지를 점검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위원들은 사업의 기초 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가운데 지역 어업 및 관광업에서 방아머리항이 차지하는 위상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

업과의 연계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비의 연차별 투자계획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상급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했다.

박태순 위원장은 "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고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사업인 터라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예산안 심사의 엄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의 살림 규모를 결정하는 중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적절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결위원들과 합심해 심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해온 예결위는 이날 현장활동에서 파악한 내용과 그간의 자료를 토대로 14일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다.

최정부/기자



### 안성시 "공익활동 모두 즐거웠어, 가치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한해 마무리하며 활동 공유해요!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지난 12일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2년도 활동을 공유하는 '공익활동 모두 즐거웠어, 가치인!'을 개최했다.

이번 '가치인'은 시민과 함께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공익센터 1층 공간에서는 '목금토크래프트'와 공익센터가 위치한 영동마을 주민들의 흥복상회, 사회적경제기업인 (주)무지개공방, (주)마음도시락, 지온사회적협동조합, (주)이너뷰 등 25개 부스가 참여한 플라마켓과 공익활동 관련 전시를 진행했다.

또한 3층 공익센터 공간에는 공익센터 입주단체 소개 및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전시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네트워크인 '반갑습니다. 서로를 알아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소개하고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공유했다.

특히 18개 입주단체들은 각각 1년 활동을 사진 등으로 요약해 발표했으며, 올해 공익센터 입주로 인해 달라지고 편리해진 환경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안성 공익센터는 독립형 공유사무실과 공유형 사무실을 대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전국 최초로 민과 관이 함께 공유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모델로 평가돼 경기도 및 전국 지자체의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

경기도, 서울시, 고양시  
조선의 수도성곽과  
방어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공동 추진

경기도와 서울시, 고양시가 공동 추진 중인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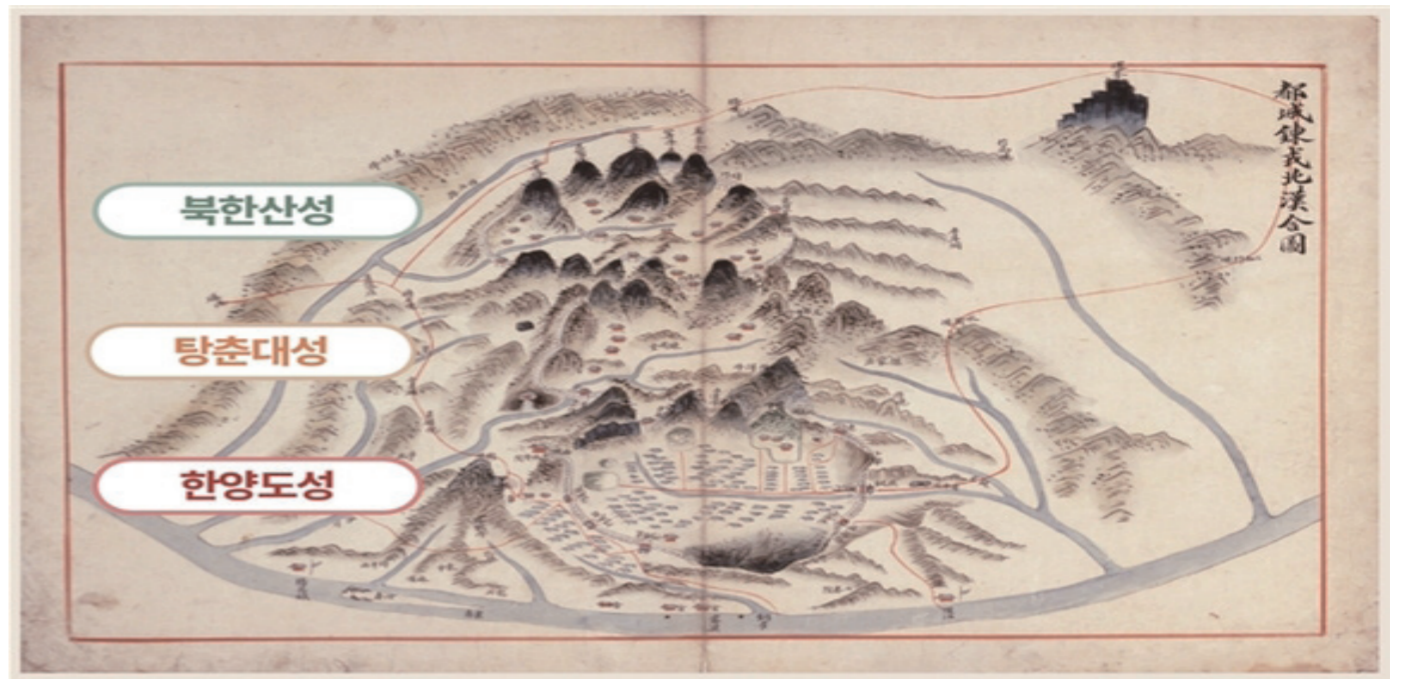
경기도는 문화재청이 지난 8일 '조선의 수도성곽과 방어산성: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 등재 준비가 잘 된 유산을 선정하는 단계다.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기까지 등재신청 후보 선정, 등재신청 대상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 서울시, 고양시 및 경기문화재단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에 잠정목록에 등재된 한양도성에 북한산성과 탕춘대성까지 연계해 '조선의 수도성곽과 방어산성'을 연속유산으로 구성했으며, 이번에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 고양시는 9월 30일 '수도성곽 방어체계와 군사유산'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양도성과 배후지역인 북한산성, 그 사이를 연결하는 탕춘대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18세기 조선의 성곽관리 및 운영이 체계적이고 조직화 됐음을 입증



중하고, ▲등재 신청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전문가 자문 ▲국내외 유사 유산의 비교연구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세계유산 등재 특별전담 조직(TF팀) 구성 등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조선의 수도성곽과 방어산성'은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한 성곽군으로 18세기 완성된 수도 방어성과의 구조와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표

준화된 소성식(축조 방식의 일종) 축성기술의 적용 및 수도성곽·방어산성을 차단성으로 연결해 일체화된 방어시설을 구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유산보호관리를 위해 경기도-서울시-고양시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통합연구조직을 구성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 업무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규제 아닌 지원에 중점 두고 사립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할 것"

14일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경기총회서 특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하나의 교육주체이자 소중한 교육현장"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립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14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택스에서 열린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경기총회에 참석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 임 교육감은 "사립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학 업무 담당 부서인 사립학교지원과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구성해 현장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개성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실현"이라며 "사립학교 현장이 의지를 갖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강은 도내 사학법인과 경기도 교육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의뢰로 마련됐다. 이날 경기총회에는 임 교육감과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 사학법인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도내 사학법인은 총 152개(관내 128개, 관외 24개)이며, 사립학교는 총 248교다.

조혜영/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결핵퇴치기금 마련 위한 크리스마스 쉼 성금 전달

김동연 지사 14일 '크리스마스 쉼 증정 및 특별성금 전달식'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도청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로부터 결핵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쉼을 증정받고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집이 너무 어려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폐결핵을 앓았다. 가난의 증표 비슷한 거였고, 완치됐는데 지금도 엑스레이(X-ray)를 찍으면 폐결핵 흔적이 나온다"라며 "결핵 환자 지원 홍보활동을 할 때 '도지사도 젊었을 때 폐결핵 환자였다더라' 얘기를 해주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많은 분들이 결핵은 없어진 병으로 아는데 부총리를 할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인명률이 높아 깜짝 놀랐다"면서 "도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쉼을 통한) 기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에는 대한결핵협회 최종현 사무총장, 박장호 경기도지부 본부장이 함께 했다. 김

동연 지사에게 전달된 크리스마스 쉼 주제는 '꿈을 향해! 세계를 향해! 손흥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담아 제작됐다.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는 내년 2월 말까지 2억 9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크리스마스 쉼 판매를 실시한다. 모금액은 결핵환자발견사업, 대국민 홍보사업, 결핵환자 및 학생행복나눔지원사업 등으로 전액 사용된다.

크리스마스 쉼은 크리스마스 기부스토어에서 온라인 구매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다. 가격은 세트 하나(10장)에 3천 원이고, 같이 판매하는 열쇠고리는 하나당 5천 원이다.

한편, 결핵 환자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로 매년 2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전국 결핵 등록관리환자는 2만 2천900여 명이며, 이중 경기도민은 5천 100여 명이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 개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들에게 우리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좌장을 맡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처우의 현황을 파악하고,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승비 보훈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훈과 복지는 국가에 공헌한 이들에게 보상과 예우를 실천하는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일반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관련 문화누리카드 등 문화바우처와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현황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보훈 급여금, 의료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취업 지원 등 여러 지원 정책과 함께 전국 및 경기도의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인구 현황, 관련 조례 현황을 소개하며, 경기도 보훈대상자 가족 우대카드 발급 및 사용 확대 방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선광 대한민국의회공무원유공자회 부천시지회장은 "바우처 및 복지부대 카드 제도에서 참전유공자 유가족은 해당 법이 존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복지부대 카드 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주차장 마련과 특수 임무 유공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양규 대한민국의회공무원유공자회 의양시지회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선정으로, 나머지 가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는 한 사람만 지정하는데,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되, 그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임무유공자는 혜택 제공

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이나 여성 단체와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두현은 안산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은 "원래는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류 증명서를 발급했으나, 소지가 불편하고 훼손되기 쉬우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했다"며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 우대카드의 도입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카드발급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과 카드 혜택을 설명하며, 가족 우대카드 소지자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공용주차장 이용 감면과 발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권문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과장은 국가유공자 관련 제도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현재 여러 종류의 바우처가 있는데, 사업 예산이 금융기관과 연계를 해야 하고 현금 지원을 선호하므로, 바우처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상과 지원 범위에 대해

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우대카드 제도와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규 부위원장은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 취합과 더불어, 보훈처와 2차 토론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기본적인 조례안을 발표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들에게 우리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등 많은 동료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혜영/기자

#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차질없이 이행 중

## '202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2020·2021년에 이어 세 번째 보고서

2018년 10.28%였던 수원시 전력자립률은 2019년 13.06%, 2020년 15.3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5784tCO2-eq, 2019년 5695tCO2-eq, 2020년 5497tCO2-eq로 줄어 들고 있고, 2020년 미세먼지(PM 2.5) 연간 평균 농도는 21μg/m³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원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2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펴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공동 목표 17개를 정한 것으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수원시는 유엔에서 채택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 여건과 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10개 목표로 정리했고, 2017년 11월 민·관 공동으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선언했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환경·

경제·사회 등 3대 분야, 10개 목표, 57개 세부목표, 141개 평가지표 체계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평가지표와 이행과제를 마련했고,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한 각계각층 시민 180여 명이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202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둘러보기 ▲수원시 지속가능성 평가하기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의 나아갈 길 등 3개 장으로 구성됐다.

2020년 실적에 대한 시민들의 모니터링 내용, 평가 의견, 각종 통계 데이터, 이행과제 실적 등이 수록됐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모니터링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제작했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둘러보기'에서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수원인의 노력 등을 소개한다.

'수원시 지속가능성 평가하기'에서는 평가지표와 이행사업, 목표별 모

니터링 결과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이들테면 '목표1 모두를 위한 착한 에너지로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전력 자립률 ▲재생에너지 발전량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연도별 변화와 모니터링 의견 등을 볼 수 있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의 나아갈 길'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대내외 환경,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한다. 추진 방향은 '20년 단위 기본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 가치 확산',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이제준 수원특례시장은 발간사에서 "국가부터 기업까지 모두가 지속가능발전에 주목하는 지금, 수원시에서 펴낸 보고서가 지속가능발전에 발을 디디는 모두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돼 줄 것"이라며 "수원시의 경험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수원시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원시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22 수원시 지속가능발

전 보고서'를 시정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전국 지방정부에도 배포해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수원시 = 2022 수원시 지속가능발

조혜영기자

##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광주시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전달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 한다고 14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예술, 주민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시는 답례품 품목으로 농·축·임산물(쌀, 토란, 엽채류, 토마토, 딸기, 배, 복숭아, 굴, 대추, 꿀, 농산물꾸러미, 한우, 계란, 버섯, 동충하초, 산양삼), 가공식품(토마토즙, 토마토잼, 버섯가공품, 고추장), 공산품(서류가방, 카드지갑, 주방타올, 텀블러파우치, 예코백, 시장가방, 핸드폰가방, 목베개, 밀폐용기), 주류(소주, 막걸리), 공예품(도자기제품) 등 32개 품목에 대해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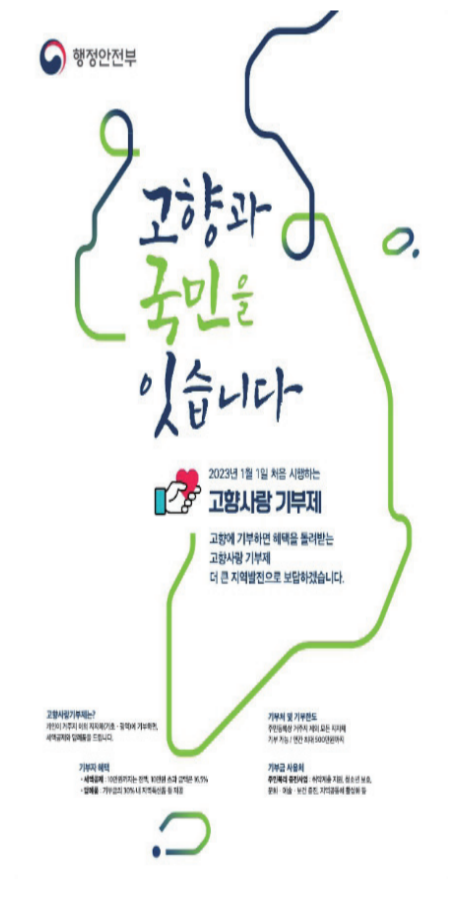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생산·제조·유통 기반을 갖춘 업체로 필요 시기에 답례품 공급이 가능하며 택배 포장까지 완료 가능한 업체이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자치행정과(760-1708)로 문의하면 된다.

업체 선정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향후 협약과 함께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박강호기자



## 광주시 도척면, 온기를 전하는 희망 연탄 지원

광주시 도척면은 14일 도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봉사단체 조은친구에 회원들과 함께 관내 취약계층 2가구에 연탄 1천장을 지원했다.

이날 연탄 나눔 봉사는 도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조은친구들로부터 연탄 1천장을 후원받아 조은친구들 단체 회원들과 함께 홀몸 어르신 가정에 손수 연탄을 하나하나 창고에 쌓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연탄을 받으신 어르신은 "겨울에 난방비 부담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서준규 면장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도척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 고양특례시, 2022년 시정발전 성과 "눈부셨다"



고양특례시가 2022년 올 한 해 대통령상 수상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눈부신 성과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시장은 14일 오전 시정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의회가 재개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와 결실을 맺어 준 3천여 공직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과 '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22 제안활성화 우수기관'과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적제 정부포상'을 비롯해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전', '제15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장관표창', '6.25전사자 유가족 초청 유해발굴사업', '2022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등 23건의 장관상을 받았다.

경기도지사상도 '2022 시군종합평가'와 '2022 도로정비평가', '2022 지방재정 운영 평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2022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환경경영 기후위기 대응 우수지자체 유공' 등 22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 '2022 대한민국 마이스 대상' 등 자치·관광·복지·환경·교통·건설·재정·행정·정보통신 등 각 시정 전반에서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약 30건을 수상했다.

이 시장은 이에 "좋은 성과들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

니라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면서 "이러한 성과는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로 함께 이뤄낸 결과이며 열심히 노력한 대가"고 격려했다.

한편으로 "공모나 평가와 무관하게 법령에 맞추어 빈틈없이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시정발전에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표했다.

이 시장은 특히 '2022 하반기 민원처리 우수자 표창'과 관련해 "감정노동자로서 어려운 근로 조건 속에서도 깨끗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콜센터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과이불개(過而不改)'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잘못된 답습 행정과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 왔고, 그로 인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고 토로하면서 "앞으로 모호한 행정은 탈피하고, 민선 8기 정책 철학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다가오는 2023년은 민선 8기의 정책과 철학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저하지 말고 시장을 믿고 과감히 전진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이 따뜻한 손길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복지 지원이나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고, 한 해 동안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기관 및 단체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소방서 격려 방문



이권재 오산시장의 김포소방서와 원활한 소통과 업무 협력을 위해 14일 오산소방서를 방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

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불철주야 오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

하고 계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출동대원과 만난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이 있어 오산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소방공무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와 오산소방서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안전한 오산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환경복 오산소방서 서장도 "바쁘신 일정에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방문해 주신 것에 전 직원을 대신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오산시 시정방향에 맞춰 협력하면서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 광명동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100대 관광명소에 4회 연속 선정!

### '2023~2024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

광명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인 광명동굴이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동굴이 4회 연속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로서의 매력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재충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광명동굴은 이번에 '2023~2024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2017~2018년부터 4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1972년까지 금·은·동·아연을 채굴하던 금속 광산으로, 1972년 폐광된 이후 새우젓 저장고로 쓰이다가 2011년 광명사에서 매입하여 개발했다.

동굴 내부에는 미디어파사드쇼를 상영하는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 황금폭포, 근대역사관 등 다양한 볼거리



가 가득하며 동굴 외부에는 라스코 전시관, LED 미디어타워, VR 체험관, 인공폭포, 도담길 등 특색있는 장소와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

광명동굴은 지난 2015년 유료 개장한 이래 710만 명이 방문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은 지자체 추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후보지 등 235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대상지는 국문 관광 정보 제공 누리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상세정보가 제공되고 외국어도 번역되어 전 세계에 우수관광지로 소개될 예정이다.

윤용민기자

### 구미시 『2025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유치!

아시아육상연맹 이사회에서 중국 샤먼시 제치고 대회 개최지로 선정



구미시가 『2025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아시아육상연맹(Asia Athletics Association)은 12월 14일 16시(한국시간 12월 14일 17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이사회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구미시를 『2025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 발표했다.

구미시는 아시아육상연맹 투표권 이사회 18명 중, 불참 위원 2명을 제외한 전체 16표 가운데 10표를 받아 경쟁 후보도시인 중국 샤먼시를 제치고 국내에서 세 번째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성공했다.

1973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권 육상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이자 권위있는 대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제2회 대회), 2005년 인천(제16회 대회)대회 이후 20년 만인 2025년에 구미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유치전에서 구미시는 인구 528만명의 중국 샤먼시와 경쟁하여 자본 및 인프라 등 대회개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사회 내 투표권이 있는 위원이 있고, 한국은 부재한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중국의 왕난 부회장이 대회 유치PT를 직접 발표하는 등 구미시의 대회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집약된 경기시설과 뛰어난 접근성, 코로나 팬데믹 상황시 대응 능력을 강점으로, 안전과 신뢰를 대회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유치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삼성, LG, SK실트론 등 글로벌 대기업이 소재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대표 산업도시인 구미시가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시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약을 통해 스포츠를 비롯한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제교류 가능성을 어필했으며, 무엇보다 구미시장이 대회 유치PT에 직접 참여하여 대회 유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아가 아시아 공동 번영과 발전 비전을 공유한 것이 아시아육상연맹이사회에 크게 주효했다.

앞으로 구미시는 먼저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 202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 2024년 경북도민체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경상북도 등 중앙, 지방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2025년 6~7월 기간 중 5일간, 45개국 1,200여명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구미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봉원/기자

## 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17개 선정

시군 당 5개 품목



경상북도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경북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농·수·축산물, 공산품, 특산품 등 117개의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답례품은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고향장터 사이트 모바일 상품권과 경북마켓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23개 시군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시군 당 5개 품목으로 총 117개를 선정했다.

이는 지역에 기부한 기부자들이 경북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의 폭을 넓혔다.

특히, 고액의 기부자를 대상으로 도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도자기를 답례품으로 선보여 기부자들의 호감을 이끌 예정이다.

또 경북 고향장터 사이트소몰에는 지역내 1385개 업체가 입점해 8631종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경북마켓은 도내 사회적기업 71개 업체가 입점해 201종의 공산품과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답례품은 지역대표성, 시군 지역간 형평성, 안정적 공급가능성, 기부자 선호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간 도는 기부자의 마음을 끌 매력적인 경북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을 위해 23개 시군의 대표 특산물을 조사하고 시군 과장회의와 고향사랑기부제 TF팀 회의, 넷북연구단 자문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답례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상품의 경쟁력 및 인지도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답례품을 확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이날 결정된 답례품들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

정이다.

또 답례품을 반영한 리플릿,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지역에서 제조·채취된 지역특산품과 제조물품 등 다양한 답례품의 제공하고, 경북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선택으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해 지역에 재기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선정

울진군의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최종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국내 대표 관광지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천혜 바다를 즐기며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시원한 동해 바다의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울진군의 대표 관광지로, 투명한 에메랄드빛 울진 바다를 바로 발밑으로 달리며 바다 위에서 바다를 볼 수 있고, 레일 전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근처에는 죽변등대, 후정해수욕장, 하트해변, 국립해양과학관 그리고 동해안의 해산물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죽변항

까지 주위에 여러 볼거리와 아름다운 관광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 울진군을 방문하면 꼭 방문해야 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됨에 따라 울진군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울진군과 경상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지로서 입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관광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이자 군민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다"며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며, 앞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고 군민이 잘사는 울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윤경희 청송군수, 지역 발전·도약 위한 쟁결음 지역 현안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경북도 협조 방문'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역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2월 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건의, 청송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건의 등 청송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경상북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

성은 민선 7.8기 청송군수 공약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청송의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섬유박물관, 아름다운 공유사업 특별전시 '행복한 토끼와 친구들' 개최

박물관과 섬유기업, 지역기관이 협력한 '아름다운 공유사업'

대구섬유박물관은 아름다운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청소년들의 작품으로 꾸민 특별전시 '행복한 토끼와 친구들'을 2층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토끼해를 맞아 '마음으로 그리기' 센터(대표 박은주) 소속 발달 장애 청소년 19명이 참여해 토끼, 악어, 호랑이, 자동차 등을 소재로 그린 70여 점의 그림을 선보인다. 이 그림 중 일부는 박물관 문화상품으로도 소개될 예정이다.

이 전시는 박물관이 섬유 기업, 지역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아름다운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별전시다.

대구섬유박물관은 2018년부터 섬유 기업들이 버리는 자투리 원단을 기증받아 박물관의 섬유 체험에 활용하거나, 문화상품으로 제작해 소외계층에 기증한 바 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마음으로 그리기 센터 소속 청

소년 작가들과 저작권 계약을 맺고 그들의 작품을 다이텍연구원과 협력해 쿠션, 무릎담요, 바다필로우 등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제작했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10대~20대로 모두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미술 재활교육을 받았다.

박은주 센터장은 "자폐증이나 지적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한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는 현상인 '서번트 신드롬'은 2,000명 중 1명꼴로 드물게 발현하는 만큼 서번트들의 경우를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안된다. 일반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서번트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물을 형태화할 수 있다. 처음에는 연필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시작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형태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노력의 결실이 모여 이번 전시를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대구섬유박물관 담당자는 "대구섬유박물관이 지역의 환경과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시민들을 위한 공유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오늘날 요구되는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으로 그리기' 센터 청소년들의 작품은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일상에서의 팽팽한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가족과 함께 오셔서 그림이 주는 따뜻한 기운을 함께 느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시 기간 중 박은주 센터장이 들려주는 전시해설이 '특별한 반짝임'이라는 주제로 12월 17일(토), 1월 8일(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17일(토)/18일(일), 1월 15일(토)/16일(일)에는 전시 교육프로그램 '마음으로 그리기 에코백 꾸미기'가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1월 24일까지 개최된다.

윤근수/기자

아름다운 공유사업 특별전

# 행복한 토끼와 친구들

Happy bunny with friends

대구섬유박물관 2층 전시홀  
22.12.09. - 23.01.24.

전시해설 '특별한 반짝임'  
박은주 (마음으로 그리기센터장)  
12.17(토)/1.8(일) 14:00

대구섬유박물관

### 문경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문경시는 2022년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정신과 이념이 담긴 5개 분야 13개 항목 23개 지표에 따라 1년 동안 추진한 새마을운동 성과를 평가해 시상한 것으로 문경시는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행사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시는 코로나 극복 방역 활동, 특수 마스크 제작, 캠페인 등을 병행하며 아

름다운 내고장 세천 가꾸기 사업, 3R 운동 연계 자원재활용품 수집 운동,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어 주기, 전통시장 활성화 운동, 농촌일손돕기 등을 추진해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한결같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노고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문경이 더 큰 발전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봉원/기자

### 영양군 주왕산국립공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 영양군 수비면 일원 친환경 체류형 에코촌 조성



영양군과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14일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의 위·수탁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영양군청에서 실시했다.

에코촌 조성사업은 국비60억원, 도비18억원, 군비48억원 총126억원이 3년간 투입되는 연차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영양군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과 명품마을조성사업을 통한 전문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국립공원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에코촌 조성 대상지인 영양군 수비면은 국내 최대 자작나무숲 군락지 및 국제발하늘보호공원 등이 위치한 곳으로 영양군은 수비면 일원에 환경체험교육장, 커뮤니티시설 및 정형힐링 숲 등을 갖춘 에코촌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장시간 체류하면서 영양군

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광객이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자"는 뜻을 전했으며, 주왕산국립공원소

장(박현상)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운영으로 축적된 우수한 생태관광 노하우를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에코촌 조성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주)환승공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의성군은 (주)환승공조 이진영 대표, 의성농공단지연합회 남재항 회장 부부가 9일 의성군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환승공조는 2011년부터 의성군 단밀농공단지 입주하여 공조덕트 등 공기 조화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뛰어난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종 업계에서도 소문난 우량기업이다.

평소 신의와 성실이야말로 기업경영의 최선이라고 여겨온 이진영 대표는 지역 사회와의 화합에도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을 가져 현재 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의성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남재항 연합회장은 단밀농공단지협의회장과 의성군농공단지연합회장을 겸직하면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진영 대표는 "최선을 다해 얻은 기업이익을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환원할 수 있어 무엇보다 보람을 느낀다"라며 의성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경기침체, 물



류파업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재항 회장이 선도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군과 협력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점에 늘 감사하다"라며 "이번 (주)환승공조의 장

학금 기탁이 관내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금자/기자

### 대구 중구 서문시장&동성로, 한국관광100선 선정

#### 동성로, 한국관광100선 최초 선정

대구 중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리나라 대표관광명소 '한국관광 100선'에 서문시장과 동성로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성로는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자원이 밀집한 관광의 중심지로서, 각종 축제의 중심지임은 물론, 함께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서문시장 및 12개 명물골목의 접점이 되는 대구 상권의 중심지로 대구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거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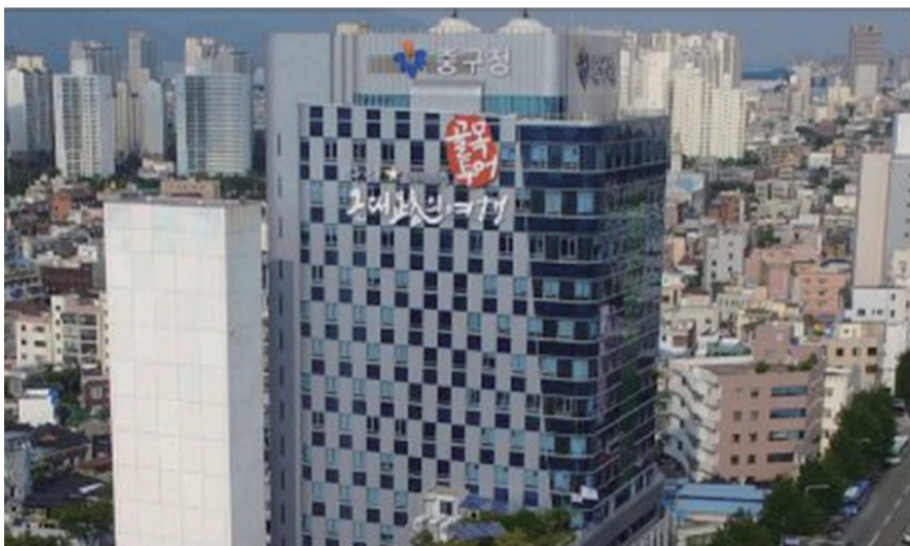
동성로의 중심인 야외무대를 재단장한 개방형 문화예술공간 '동성로 28 아트스퀘어(ART-SQUARE)' 오픈, 동성로 미디어아트 추진 등 도심디자인 개선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관광환경에서 '동성로 스마트 쇼핑관광' 추진,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특구' 지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고 지역관광소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

아 한국관광100선에 최초로 선정됐다.

서문시장은 2017년 한국관광의 별에 이어 2019-2022 한국관광100선, 야간관광100선에도 이름을 올린 도심속 관광명소로 우리 중구가 대구 관광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추억이 깃든 대구 동성로가 한국관광 100선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인을 넘어서 외국인까지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사업을 육성해 글로벌 관광지로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 '안동시 분리배출 학교 with 바퀴 달린 시장실' 운영

안동시는 지난 13일 서구동 복지회관에서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한 '안동시 분리배출 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민선8기 시민 소통사업인 '바퀴 달린 시장실'을 통해 접수된 청결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과 권기창 안동시장의 클린시티 조성 비전 공유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권기창 안동시장의 민선8기 역점과제인 '머무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클린시티 조성을 위한 비전 공유로 시작했다. 이후, 안동시 자원재활용 팀장의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안내, 권기창 시장이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며 학습하는 분리배출 OX퀴즈, 안동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장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기존 행정에서 주도하는 홍보방식의 분리배출 교육이 아닌 주민 스스로 지역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요청한 주민 주도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고 참



여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분리배출 교육이 위대한 시민들과 깨끗하고 새로운 안동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클린시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상북도교육청,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 소통 공감, 따뜻한 경북교육 경주 타운홀미팅



경상북도교육청은 14일 경주 컨벤션리조트에서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지역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경북교육 경주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날 타운홀 미팅은 80분 간 학부모들과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상처받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회복 정책과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대비한 미래교육에 대해 학부모들과 공감하

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감과 함께 아이들의 학업, 진로, 교육환경개선 등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무척 만족했고 멀게만 느껴졌던 교육감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학부모들과 소통 공감하며 학생들의 행복이 가장 우선시 되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 2022년 경북 의용소방대 성과비전 보고회 개최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4일 문경 STX리조트에서 '2022년 경북 의용소방대 성과·비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학홍 행정부지사,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및 도의원, 김영길 문경부시장,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퇴임대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의용소방대 우수사례 발표, 안전경북 실현을 위한 발전방안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그간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다져온 의용소방대의 단결력을 도정 추진에 접목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

련했다.

특히, 올해 연말에 퇴임하는 의용소방대장 103명은 각 지역에서 화재 예방 홍보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그간의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소방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역량을 집중시켜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시교육청,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학교 설명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12월 12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학교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는 대명초 등 총 15교(22동)이며, 대구시교육청에서는 1,4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또는 개축을 통해 미래형 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성격과 절차를 안내하여 학교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대상학교와 사업 추진 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15교 60여명의 학교 구성원(학교 관리자, 담

당 교사, 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기 실시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학교의 사전기획 우수사례(대구초 변영은 교장, 청구중 남기재 교장)를 발표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 후 학교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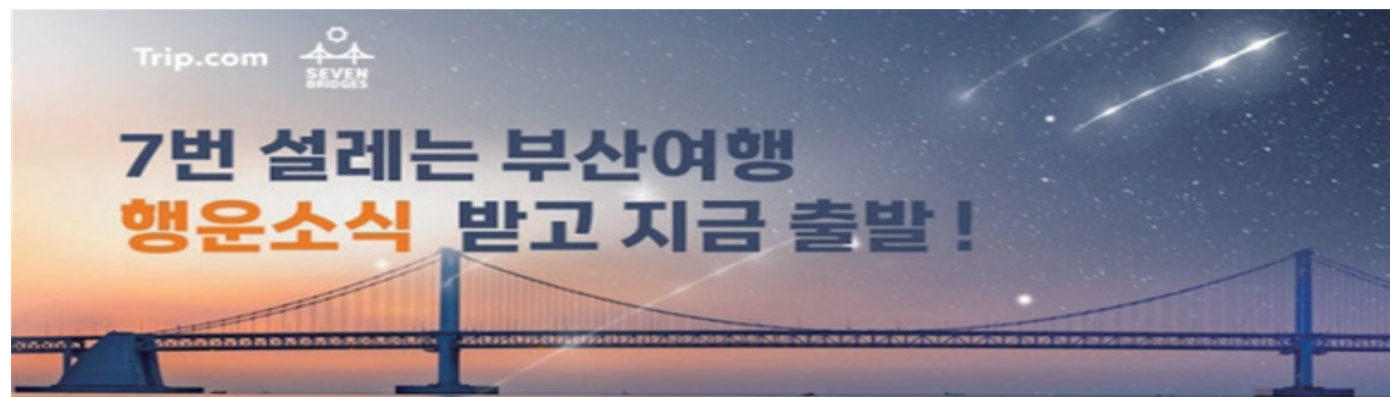
강은희 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학교의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학교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에도 워크숍 개최, 담당교사 및 관리자 협의체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세븐브릿지 따라 설레는 부산여행 즐기기

교량별 관광콘텐츠 및 로드트립 코스 소개 등 행운찾아 '7번 설레는 부산여행' 기획전 실시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의 7개 해안교량 및 7개 해수욕장을 활용한 '세븐브릿지 관광콘텐츠'를 홍보하고자 오늘(15일)부터 연말연시 관광객 유치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부산 조성을 위하여 해양자원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관광거점을 만들고자 '세븐브릿지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7번 설레는 부산여행'으로, 세븐브릿지 주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기획전으로 진행될 예정

이다.

프로모션은 오늘(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인 '트립닷컴'을 통해 ▲'7개 교량별 관광콘텐츠' 소개 ▲'차량을 이용하는 로드트립 추천코스' 소개 및 ▲'세븐브릿지 특별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먼저, ▲'7개 교량별 관광콘텐츠' 소개는 세븐브릿지 브랜드 개발 과정에 참여한 여행작가 등 전문가 및 세븐브릿지 서포터즈 등 시민참여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야간 구석구석 즐길 수 있는 세븐브릿지를 알려준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로드트립'은 7개의 교량 자원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해안교량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세븐브릿지 특별할인 쿠폰'은 부산행 기차 및 세븐브릿지 인근 숙박, 유료 관광지의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세븐브릿지를 따라 부산을 체류하며 교량 주변의 추천 여행지 구석구석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쿠폰은 트립닷컴에서 내려받아 선착순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8

천 원까지 할인된다. 할인 대상은 트립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프로모션과 연계하여 '세븐브릿지 추천 여행 참여 인증 이벤트'를 세븐브릿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다.

세븐브릿지 인증샷 및 세븐브릿지 주변 관광지와 연결된 자신의 경험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여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세븐브릿지 굿즈 다이어리 및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유규원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세븐브릿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교량이 가지는 연결이라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 교량이 이어지는 지점을 활용한 '거점형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뷰포인트'의 발굴까지 관광 요소가 매우 많다"며, "세븐브릿지를 따라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대표 관광지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관광객 참여 이벤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진기/기자

## 예천군, 제8회 예천군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성료

한 해 배운 것들을 나누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예천군은 14일 오후 2시 문화회관에서 '예천군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최병옥 예천군의회 의장과 관내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장,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발표회는 한 해 동안 △찾아가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행복학습센터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해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 의욕을 고취하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전 통기타 연주를 시작으로 색소폰, 풍물, 댄스, 난타, 기타 등 12개

팀이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별공연으로 김서연 전자첼리스트의 공연이 이어져 관객으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평생학습 동아리가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 서로가 화합하는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기 좋은 예천을 만들어 군민 모두가 배움을 통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통영 디피랑,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선정

통영시는 국내대표 관광지 선정 및 홍보를 통한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마다 선정하는 '2023 ~ 2024 한국관광 100선'에 '통영 디피랑'이 선정됐다고 12월 13일 밝혔다.

'2023 ~ 2024 한국관광 100선'은 ▲2021~2022년 한국관광 100선 상위 50개 ▲지자체 추천관광지 ▲빅데이터 분석(입장객 통계, 이동사 데이터 등)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통영 디피랑'의 경우, 낮에는 주민들의 산책공원으로 야간에는 국내 최장·최대 규모의 야외 디지털 테마파크로 운영되는 관광지로서 디지털이라는 현대적인 요소에 통영항·자개·벽수·남해안 별신굿 등 통영다움을 담아내어 통영의 정체성을 표현되게 표현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0년 10월 개장 이후 7개월 만에 누적 관광객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

에게 인기가 있는 곳으로, 야간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아울러, 디피랑은 2021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 주관 안심관광지, 강소형 관광지에 선정된 바 있으며, 한국관광학회 주관 관광부민 대안민국상품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역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통영시 관광지는 ▲ 2013년 ~2014년 통영항, 소매물도, 미륵산, ▲ 2015년~2016년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동피랑 마을, 장사도, 소매물도 ▲ 2017년~2018년 동피랑마을, 소매물도 ▲2019년~2020년 스키이러린 루지 등이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2022년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



정된 데에 이어 통영 대표 야간관광지인 '통영 디피랑'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야간 관광지는 통영이라고 인정받은 것"이라며 "통영 디피랑을 중심

으로 하여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통영 관광과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 울릉군, 해양심층수로 재배한 작물로 김장김치담그기 교육시행

울릉군은 김장김치를 담가보지 못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슬로푸드관에서 김장김치 담그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12일부터 14일까지 시행했으며,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박기찬 연구사와 김장김치 담그기에 일가견이 있는 울릉군생태환경회 회원의 지도아래 참가자들이 재료비를 부담하여 건강하면서도 울릉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김치를 담가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무기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심층수로 재배한 작물(배추, 무)을 기본 재료로 사용했고, 그 외 젓갈과 양념 등 속재료는 시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누구나 김치를 손쉽게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며, 배추 절이기, 세척하기, 양념 만들기, 김치 버무리기 등 김치 담그기의 전 과정을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했다.

생활이 간편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김장

품식의 맥이 점차 사라져가는 가운데 김치를 주로 구매하여 먹거나 절임된 배추를 구매하여 김치를 담그던 젊은 주부들이 직접 배추 절이기부터 전 과정을 직접 체험 해 봄으로써 우리의 일년 밥상을 책임지는 김장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다.

한 교육생은 "울릉도 심층수로 재배한 밭을 수 있는 배추와 무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먹거리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김치도 사먹는 문화에 익숙해지는 요즘 김치를 직접 담가봄으로써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킨 것 같아 뿌듯하다"며 교육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의 청정 심층수로 재배한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며, 또한 우리 전통 식문화인 김치를 계승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현중/기자

##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 기탁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일동은 14일 관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는 14개 단체, 1,02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매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랑의 반찬 나눔 등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축제기간 동안 카페부스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성금을 기탁했다.

류명화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성금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나눔 실천에 동참해 주신 봉화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후원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쓰이도록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대구광역시 연계 미래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신설과 운영

군위군은 성공적인 대구광역시 편입과 민선8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군위군에 따르면 조직개편 내용은 담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4일 군위군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기존 2실 11과 2단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7면 123담당에서, 2실 1단 1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7면 129팀 체제로 전환된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연계 미래도시 정책 수립과 군수 공약사항 추진, 지역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개발을 위한 '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통합신공향의 착수에 따라 공향도시의 도시계획과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공향도시개발과'도 신설 운영한다.

또한, 군민 웰스톱 민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인허과를 신설하여, 민원인허가 웰스톱 민원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과에 배치해 주민안전 및 재난재해 예방 전담을 총괄한다.

농정부서는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병합하여 농정사업의 기획, 연구, 지도, 생산, 유통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유통과를 신설하여 다가오는 대구광역시 유통시장을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

8개 읍면에는 65세 노령인구가 많은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하여 주민 밀착형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행정기구 최소화사업 담당을 팀으로 변경하여 기동력있고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의 새로운 시대와 민선 8기 중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의 최종 수혜자가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광삼/기자

## 케이메디허브, 디어젠과 AI신약 개발 공동 수행

DEAR GEN 디어젠 K-MEDI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AI신약개발 플랫폼 한국대학교 DELT 기술과 AI를 활용한 혁신신약 플랫폼 개발 공동연구 협약식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와 디어젠(주)(대표 강길수)는 13일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분야 공동연구협약을 맺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메디허브의 합성신약 산학연계 지원사업은 22년 시작하여 27년까지 국내 신약개발 기관의 초기 파이프라인의 성숙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케이메디허브, 디어젠, 한국대학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디어젠(주)는 AI 신약개발 전문 기업으로 단백질과 화합물간 결합정도

를 예측하는 디어젠만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통합 플랫폼 'DEARGEN iDears'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와 디어젠(주)는 본 업무협약을 통해 대안위 신규 화합물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진영 이사장은 "신약개발과정에 새로운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신약개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케이메디허브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 일본 세일즈외교 ‘시동’

## 경제통상·전통문화·공공외교 등 나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일본 세일즈 외교활동이 시작된다.

김 지사는 오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와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전북 농수산식품을 비롯한 도내 생산품의 수출 판로 개척 등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지방정부간 공공외교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방문 첫날인 15일에는 일본 언론을 만나 전라북도의 주요 정책과 새만금 등 투자 환경, 문화, 대일 지방외교 현황, 내년도 전북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소개한다.

이어 제일 한상인과의 간담을 통해 도내 우수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각종 생산품의 판로 확대 방안을 놓고 전북도와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 지사는 또 새만금 유치 1호 해외 기업인 ‘(주)도레이’ 넷카루 야키 히

로 회장과 면담을 통해 전북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방일 이튿날인 16일에는 ‘제일 한국 농식품 연합회’와 수출판로 개척과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 업무 협약 체결도 예정돼 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도 교류지역인 가고시마현으로 발길을 옮겨 시오타 코이치 가고시마현 지사와 공식 외교활동을 벌인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양 지역간 교류 정상화와 이를 통한 실질적인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공식 일정 마지막날인 17일에는 가고시마현 소재 심수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에서 전라북도 한지 공예품을 전시하는 기념식에 참석한다.

심수관 도예관 수장고에 전라북도의 한지를 활용한 공예작품들을 전시해 도예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북이 가진 전통문



화의 우수성을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가고시마현, 후쿠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가고시마현 주민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도쿄 제일전북도민 회원들을 만나 전북, 전북인으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화합의 장을

연 뒤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일본 방문은 지난 미국 방문에 이어 전북도의 경제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세계 속에 전북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세일즈 외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선정 쾌거

전라북도 진안군 대표관광지 마이산도립공원이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총5회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지 선정 과정에서 주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마이산은 암마이봉(687.4m)과 수마이봉(681.1m)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두 봉우리로 프랑스 여객안내서 미술맹그린가이드에서 만점인 별 세 개를 받은 명소 중 한 곳이다.

군은 이번 한국관광 100선 선정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각종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한국 방문의 해 사업 계획과도 연계해 국내외 홍보에 큰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마이산에 대한 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임을 다시 한번 알게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마이산을 거점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웰니스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 남원시, 에코에너지원(주),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그룹으로 우뚝’

남원시는 13일 에코에너지원(주)이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에코에너지원(주) 기부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9월 5백만원을 기탁한 바 있어 사회적 공헌 기업으로 우뚝 섰다.

사업장은 남원시 여현동에 위치해 있으며, 산림 사업 및 임산업에서 생산된 산림부산물 등(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이용하여 친환경 목재펠릿 및 목재칩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유성민 대표, 주중훈 전무 외 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성민 대표는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에코에너지원(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에코에너지원(주)이 보내주신 온정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나눔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남출/기자



# 군산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 사업참여기업 모집

군산시는 오는 20일까지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한다.

지주형 사업은 시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현안 사업 및 지역 특화사업에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과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에는 3가지 특화산업 분야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 주력산업 회복을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가동’ 분야에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 조선업 생태계 복원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 소 등), 그린 IT(이차전지, 무선통신 등), 친환경 자동차·선박 및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산업 분야를 지원해 지역 산업구조 대전환과 더불어 탄소 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이루기 위한

방편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푸드플랜(food plan) 및 식품 제조·가공·유통 등 먹거리산업 분야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에 일조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자격 여부 심사를 통해 오는 28일 선정할 예정이다. 추후 선정 기업과 청년의 매칭 등을 심사하여 1월 말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매칭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1인당 월 최대 1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이 일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면서 “이번 기업 모집에 지역 내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태/기자

# 익산시·지역기관, 장애인 취·창업 지원 ‘맞손’

익산시와 지역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14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내일케어(아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현을 시장과 윤동희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 유성기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박정우 주식회사 에스알 경영인재실장, 양중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 협력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사업의 지

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장애인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익산역 내일케어(아트) 사업을 위한 공간 제공, 국가철도공단은 익산역 사업공간에 대한 사용승인을 협조한다.

이어 주식회사 에스알은 재료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개선 및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시청 종합민원과 익산역 등 2곳에서 운영된다. 사업장 두 곳에 각각 2명씩 4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손톱 관리, 염양, 컬러 등 네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청 종합민원과에서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일 1일 전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익산역점(섬섬옥수)은 당일 열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메신저서비스‘카카오프러스친구 섬섬옥수(익산역점)’를 통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두 곳 모두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5개 기관

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결실을 맺은 것으로 미취업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취·창업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는 내일케어(아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꿈은 키우는 일터이자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쉼터로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지역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장애인 고용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 완주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최고상인 대상 영예

## 기관표창·5000만 원 포상... ‘복지 1번지 완주’ 재입증

완주군이 정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국내 기초단체 중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4일 완주군은 보건복지부 주관의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38개 우수 지자체가 선정된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초단체는 완주군 외에 충남 아산시와 부산 북구 등 3곳에 불과했으며, 광역단체 중에서는 대전과 경기도 대상은 차지했다.

완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 결과의 우수성, 민관협력 등에서 후한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위업을 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과 대면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완주군은 이번 수상을 통해 ‘복지 1번지 완주’라는 공식을 재입증할 수 있게 됐으며, 군이 추구하는 사회보장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강하게 추진하는 ‘행정 경쟁력’을 대내외에서 인정받게 됐다.

유희태 군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부문에서 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역복지 발전



을 위해 민·관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노력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

를 반영한 사회보장 전략체계를 마련해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김현태/기자

## “해남미남축제, 축제의 기준 만들었다”16만 5천명 찾으며 성황



### 해남군 축제평가위원회 개최, 축제 연기 등 악조건 딛고 3년만의 대면행사 호평

해남군이 3년만에 전면 대면행사로 제4회 해남미남축제를 개최한 가운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황리에 열리면서 ‘안전한 축제’의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남미남축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특히 코로나 이후 3년만에 대면행사로 마련된 가운데 축제 직전 이태원 참사의 발생으로 축제일이 일주일 연기되는 등 우려곡절을 겪었다.

군은 다중행사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축제 재개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안전한 축제’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총 16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해남의 농수산물물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 퍼포먼스 및 체험과 지역민들이 중심이 된 다양한 공연을 통해 방문객들의 호평속에 해남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로 거듭났다.

해남의 대표 농수산물인 배추, 김, 쌀, 고구마 등을 이용한 ‘세계인과 함께하는 515 김치비빔·2022인본 담장떡국 나눔’ 추억의 구이터’ 등 대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이날축제 대표콘텐츠로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김치비빔, 해남품은 배추만두, 전통매달리 만들기, 떡매치기, 고구마 고추장 만들기, 해남 쌀 클레이 등 해남 농수산물물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남의 대표 음식점들이 참여한 ‘미남푸드관’과 읍면 대표 농수산물로

만든 ‘주전부리관’ 해남 청정농수산물 시식 행사 등 축제장, 어디에서나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들이 호평을 받으며, 해남의 맛을 선보이는 맛의 축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대규모 축하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지역민의 참여와 기획을 통한 읍면 농수산물 뽐내기 개막 퍼레이드, 지역문화예술제 등 지역민 중심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공감대 높은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또한 해남형 ESG를 선도하는 축제로서 미남푸드관 다회용기 사용, 플로깅 활동가 모집, ESG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환경 축제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해남군은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2년 제4회 해남미남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축제 결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기영 해남군 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축제추진위원, 관련 부서 팀장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자체결과보고, 전문기관 평가용역 결과,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토의 과정에서는 올해 축제의 성공요인을 이어가려는 한편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 방문객과 20~30대의 젊은 나이의 방문객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 해결 방안, 주 행사장 확장성에 관한 방안 등 미남축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해남군은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됐기에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축제추진위원회와 유관기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보고회 결과 및 방문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차고, 의미있는 해남 대표 축제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정광남/기자

# 전남도,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서 1조원 투자협약

포스코홀딩스(주) 등 3개 기업, 일자리 400여개 창출



전라남도는 14일 롯데호텔서울에서 투자환경과 투자인센티브를 설명하는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포스코홀딩스(주) 등 3개 기업과 1조 2천75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박현식 여수부시장과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박영태 캐시사 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박희준 EIP자산운용 대표, 주영진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장, 신승철 보성 부시장,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강운성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수석부회장 등 100여 개 기업 대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어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중점 주력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수소, 반도체 등 전남의 역점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환경과 투자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하고 전남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구청지구 개발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전무 황준호)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도시로 조

성 중인 솔라시도의 투자 장점을 설명하면서 관광시설, 친환경재생에너지 전용산업용지, 웰니스 산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투자기로 한 TGK(주)(대표 박희준)는 해외 투자유치 계획과 사례발표를 통해 글로벌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많은 국내의 기업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포스코홀딩스(주), 금호미쓰이화학(주), LF(주) 등 3개 기업과 1조 2천75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이번 투자유치로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세풍산업단에 투자하는 포스코홀딩스(주)는 2025년 말까지 5천751억 원을 투자해 양극재용 수산화리튬제조 시설을 건립하고, 금호미쓰이화학(주)는 여수 국가산단에 5천억 원을 투자해 2024년 중순까지 폴리우레탄 핵심원료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주)LF는 고흥군에 2천억 원을 투자해 2029년까지 호텔(250실)과 해양휴양빌리지(수목원, 미술관, 해양레저시설 등)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2025년까지 30조원 투자유치와 3만 5천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목표로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있다”며 “전남은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남에 많은 투자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남도가 탄탄하게 다져놓은 인프라 위에서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전남도에 투자하도록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병수/기자

## 나주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목사내아 숙박체험권 신설

답례품으로 나주목사내아 숙박 체험권 제공, 관광 활성화 기대

전라남도 나주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답례품 5종에 대한 관내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체 공급이 가능한 나주사랑상품권, 나주쇼핑몰 마일리지, 제주, 나주산 ‘배’, ‘쌀’, ‘멜론’, ‘잡곡세트’, ‘천연염색제품’ 공급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공급 업체(품목)는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배), 세지농업협동조합(멜론),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쌀), 공산농업협동조합(잡곡세트), 천연염색문화재단(천연염색제품) 등 5곳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고려·조선시대 나주목사가 거주했던 읍성권 문화재인 ‘나주목사내아’ 숙박 체험권을 답례품 품목에 신설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 내 가능하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

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조직개편 시 정책홍보실 산하 ‘고향사랑’ 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답례품 선정과 향우회, 축제·행사자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벌여오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는 연내 답례품 공급업체와의 세부 협의를 마무리 짓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제품 등록 및 공급 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나주시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30%를 포인트로 적립 받아 답례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부는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신규 품목으로 추가한 목사내아 숙박권은 관광·체육형 상품으로 나주시 기부 답례품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사내아’(牧使內衙·전라남도 지정문화재 132호)는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천 년의 역사 동안 나주로 부임했던 300여명의 목사(목민관)의 관저였다.



목사내아는 방 5개, 일일 최대 15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숙박비용은 방 크기(2~4인)에 따라 5~15만원이다.

방 이름은 재직 당시 선정을 베풀었던 나주목사의 이름을 따 ‘유석증방’(4인), ‘김성일 방’(3인)으로 붙였으며 ‘인(仁)·의(義)·지(智) 2인실방’을 운영하고 있다.

고즈넉한 전통 한옥 형태의 목사내아 마당에는 1980년대 벽락을 맞고도 수 백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팽

나무가 있어 관광객들이 소원을 비는 명소가기도 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목사내아에 하룻밤 묵었다 하면 옛 목사들의 기(氣)를 받아 좋은 일이 생긴다는 스토리가 전해져오고 있어 나주 여행을 계획하는 기부자에게 매력적인 답례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의 맛과 멋이 담긴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 진도군, 투자유치 최우수상 등 2개 분야 수상



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2 전남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투자유치 평가 최우수상 등 2개 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13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투자유치 평가 최우수상,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투자유치 분야는 투자유치 실적과 투자실행 실적, 기업 애로사항 수렴·해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올해 6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했

으며, 총 투자금액은 3,255억원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480명으로 예상된다.

노력상을 수상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를 비롯 일자리창출과 지바불가 안정관리 등을 적극 추진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 목포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4차산업, 수산업 등 청년 일자리 18명, 청년 창업 5명 지원

목포시가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주력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사업장과 청년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 사업’, ‘청년 큰 도약 일자리 지원사업’,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일자리(18명) 및 창업자(5명) 23명을 발굴·지원한다.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 사업’은 4차산업 관련 분야 기업에 청년을 매칭해 2년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천만원의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정규직 창출을 도모한다. ‘청년 큰 도약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10개월간 근무해 경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시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수산 관련 분야 7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금 1,500만원과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2년차에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도 지원하는 청년 창업가 육성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 사업’과 ‘청년 큰 도약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해안로237번길 33),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 청년 창업자는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고하대로719번길 52)로 오는 21일까지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수 기업이 선정되면 내년 1월 중 청년근로자를 모집할 계획이다”면서 “목포시 주력산업인 수산 및 4차산업 전문인력 발굴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양



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명/기자

## 동해시 '도재비골스카이밸리 &해랑전망대', '무릉계곡'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

동해시는 '무릉계곡'과 지난해 신규 개장한 '도재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두 곳이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신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3-2024 한국관광100선'은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은 ▲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 지자체 추천 관광지, ▲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후보지 235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무릉계곡'은 신선이 노닐었다는 일명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곳으로 수많은 기암괴석과 절경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전설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명승지로 1977년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됐으며,

무릉반석, 벚나무, 두타산 협곡, 마천루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삼화사 삼층석탑(보물 제1277호),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보물 제1292호) 등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도재비골 스카이밸리'는 목호 등대, 눈골담길과 더불어 해발고도

59m 높이의 하늘산책로와 초대형 슬라이드, 스카이 사이클 등 체험시설을 겸비한 이색 명소이며,

아울러, 도재비골망이 형상의 해상 보도교량인 '해랑전망대'는 목호 바다를 감상하며 파도 소리, 바다 내음을 즐기는 산책로로, 지난해6월 신규 개장되어 현재까지 60만명이 찾는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2년 망상오토캠핑장이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이후, 이번에 다시 한번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은 관광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신규 관광지를 개발하고,

기존 관광자원과의 융화를 바탕으로 한 동해시의 고민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시에서는 이번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을 기반으로 무릉별유천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등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월출 문화관광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주요 관광지를 포함,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목호권역 2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관광 특화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2022 강원도 의정활동 베스트도의원 선정

베스트의원 김길수·정재웅·문관현의원, 베스트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행정업무 수행을 통해 現 제11대 강원도의회와 의원 41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의정활동 베스트도의원을 선정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청 행정망 시스템을 활용하여 1차로 강원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제11대 도의회와 도의원 41명에 대한 계량적 설문(5점 척도, 모름 선택 별도)과 주관적 설문(미답사례, 부적절한 사례, 제11대 강원도의회에 바라는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실시했다.

도청 조합원은 도민을 위한 소신있는 정책결정과 전문성·책임성·청렴성, 폭언 및 불필요 과다 자료요구, 지위를 이용한 특권 남용 등을 고려하여 설문에 응했으며, 이 중 베스트도의원 3명과 베스트위원회를 선정하

고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심층인터뷰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지었다.

선정 결과 베스트의원에는 김길수(국민의 힘, 영월)·정재웅(더불어민주당, 춘천)·문관현(국민의힘, 태백)의원이, 베스트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창수)가 선정됐다.

김길수 의원은 "의정활동 시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고, 도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결정을 하며, 매사 친절하고 합리적이며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원"이라는 조합원의 평가가 있으며, 정재웅 의원에 대한 조합원·후원회원들의 심층인터뷰 결과 "청렴성이 높으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원"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문관현 의원은 "겸손하며 전문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하고 청렴한 의원"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노동조합의 베스트의원 선정은 강원도의회가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도민의 대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어오다가 중단됐다. 그러나 2018년 제10기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이래 위원장 공약사항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다.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번에는 전체 명단 공개를 하지 않고,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조합에서는 선정된 베스트의원에게 조합원들의 존경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제작하여 12월 22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평창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빠른 속도로 추진 중

예산 확보, 보상, 개설 3단계 과정 차질없이 진행되어 주민 편의 증진 기대



평창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근거해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는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

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평창군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은 총 44개 노선에 길이는 9.6km, 총 사업비는 560억 원으로 도로 기능 및 교통수요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2020년 5~6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은 진부, 봉평 등 3개 노

선을 개설 완료했고, 2022년 12월 현재 4개 노선(봉평3, 진부1)을 보상 완료, 1개 노선(대화)을 공사 중에 있다.

이외 노선들도 군 도시과에서 보상 및 개설에 혼신의 힘을 다해 전력투구 중이며, 지난 9월에는 전담 인력 2명을 추가해 힘을 더하고 있어 이와 같은 속도가 유지된다면 사업종료 기간까지 충분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시가지 내 도로 보상 및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요구사항이 얽혀있어 손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평창군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아래 예산 확보와 보상 그리고 개설 3단계가 알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사업 도중 발생하는 민원과 각종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 철원 한탄강 물윗길 전면 개방

철원 한탄강 물윗길이 12월 17일부터 전체코스 8km가 개방된다.

철원군과 철원문화재단은 태봉대학교에서 은하수교(송대소)를 거쳐 마당바위와 승일교, 고석정을 지나 순담까지 도착하는 8km 구간의 한탄강 물윗길을 전면 개방하면서 주상절리길, 은하수교, 석담폭포 등과 함께 한탄강 관광 르네상스를 이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물윗길 부교 2.7km와 강변트레킹 5.3km로 만들어지는 철원 한탄강 물윗길은 지난 10월 29일부터 태봉대교~은하수교까지 1km를 임시 개방됐으며 이번 개방으로 전구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물윗길 트레킹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철원 한탄강에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직접 체험하며 물위를 걸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U자형 협곡의 계곡형 강을 걸으면서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철원군은 물윗길과 주상절리길 잔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합 이용권 운영과, 서블러스 운영 등을 통해 관광자원 연계로 운영의 효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얼음트레킹, 한탄강 물윗길 등 철원은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최적화된 관광지"라며 "관광허브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고정꽃밭에 이어 이번 물윗길 전구간 개방에 맞춰 천혜의 자연 속에서 진정한 철원의 겨울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세나/기자



## 정선군,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선군은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군은 2019년부터 1년여간 군민 공론화 및 속의 과정을 거친 후 공론화 위원회에서 현 청사부지에 청사신축을 권고함에 따라 2021년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 청사부지를 확정했다.

1년여간 진행된 기본계획 용역인 청사(의회포함)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회 지상3층), 연면적 29,324㎡(약8,870평)으로 총사업비 1,0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지하 1·2층을 포함한 총 471대 주차 공간은 대한민국 명품 5일장으로 널리 알려진 정선 5일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된 문화예술회관을 철거함에 따라 지상1층에는 군민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공연장을 비롯한 종합민원실, 전시장, 컨벤션룸, 북카페 등 군민 편의시설을 지상2층에는 군 지휘부와 각종 회의실, 지상3층에는 직원 및 군민 복지시설을 집중 배치했으며, 지상4층부터 지상6층에는 각과를 배치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정선군은 2023년까지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투자심사를 거쳐 2024년 설계공모 및 실시계획을 진행한 뒤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8월부터는 신청사에서의 업무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 돌아온 화천산천어축제 SNS 타고 입소문 솔솔

화천군, 다양한 채널의 SNS 활용해 축제 콘텐츠 홍보



3년 만에 개최되는 2023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화천군은 축제 시작이 임박함에 따라 자체 운영 중인 페이스북 국내 계정을 비롯해 태국어, 중국어(번체) 계정을 통해 주요 콘텐츠 관련 영상 등을 집중적으로 제작, 업로드하고 있다.

특히 국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매우 새로운 축제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며, 네티즌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군은 이달 초 '3년 만에 돌아온 산천어축제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 데 이어 지금은 '산천어축제 포스터 공유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다.

페이스북 이벤트는 연말까지 퀴즈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될 예정이다. 화천군의 태국어와 중국어 페이스북 계정에 축제 관련 사진과 영상 등 콘텐츠가 매주 업로드되고 있어

해외 홍보효과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화천군이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축제 대비체제에 돌입해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SNS를 활용한 홍보는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전략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화천군이 자체 보유한 팔로워 규모가 국내 약 3만2,000명, 중국어 4만5,000여명, 태국어 약 4만5,000여명, 인스타그램 약 1,500명 등 모두 12만3,500여명을 넘고 있어 효과가 배가되고 있다.

화천군은 성탄 전야, 선등거리 점등식과 세계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 개장식에도 국내 체류 중인 18개 국가의 파워 블로거 25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축제를 찾는 모든 분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했다.

최만식/기자

# 새르더하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 자매결연도시 아산시 방문



새르더하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 대사가 지난 13일 아산시(시장 박경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취임한 이슈트반 대사가 헝가리 미슈콜츠와 자매결연을 한 아산시와 교류 협력 증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자매도시인 헝가리 미슈콜츠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자유주행 등 자동차 분야와 온천관광 분야 선진국인 헝가리의 정책

노하우를 꾸준히 배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슈트반 대사는 "아산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계획에 헝가리가 항상 함께하겠다. 아산시와 헝가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아산시와 헝가리 미슈콜츠시는 2011년 자매결연 협약 이후 청소년 캠프 개최 및 오페라 축제 아산시립합창단 파견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김원호기자

# 충청남도, 도민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논의

## 도-통일부, 도민 100명과 대토론회 열고 평화통일 교육 이행방안 등 논의

충청남도가 도민과 함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새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도가 지향할 평화·통일 담론을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와 통일부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홍 지사와 권영세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도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충청남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통일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 공감대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인천, 2021년 강원도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충청남에서는 대면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담대한 구상 이행방안 △충청남도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이행방안 2가지 주제를 논의했다. 도민 100명은 특정한 이념 성향에 편중되지 않도록 10개 조로 편성해

참여자의 도민 대표성을 확보했으며, 토론회 전 과정은 온라인 생중계했다. 토론은 한중욱 통일부 평화정책과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도민의 생각과 구상 이행을 위한 우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한승대 (사)북한연구학회 이사는 발제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통일로 잇는 '충남도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도의 특징과 역사적 서사를 담은 교육 콘텐츠와 향후 건립될 '충청권 통일+센터'에서 추진할 교육 사업을 논의했다. 충청권 통일+센터는 2025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7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며,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소통 공간으로 운영한다. 권영세 장관은 토론회 이후 충청권 통일+센터 건립 예정 부지를 찾아 완



성도 높은 센터 건립 추진을 도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충청권 통일+센터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도민 참여와 체험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충남형 평화·통일교육

과 남북협력사업 추진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적극 마련할 예정으로, 충남의 이러한 노력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아산시,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확정... "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

## 14일 경찰병원 충남 아산 유치 성공 기념 공동 기자회견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충남 아산시 박경귀 시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PT를 진행했고, 영하의 날씨에도 25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평가단의 아산 방문을 환영하는 한편, "경찰병원 유치는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경찰병원 아산 유치"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명수 국회의원과 이필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운영 관련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체계, 시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열기 등이 평가에 긍정적 평가를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청 소유 유휴부지라 부지매입이나 교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광역 교통의 중심지로 교통접근성이 뛰어나고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집중수사연구원 등 경찰 관련 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연간 3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전문적인 교육·연구를 위해 방문하는 곳이라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적으로 낙점받았다. 아산시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지로 확정됨에 따라, 경찰청과 아산시는 본격적인 다음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경찰청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충남 아산시와 최종 협상 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마련,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아산시는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센터 지원 TF팀을 가동하고 의료 인프라와 의료인 복지시설 확충

시 박경귀 시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PT를 진행했고, 영하의 날씨에도 25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평가단의 아산 방문을 환영하는 한편, "경찰병원 유치는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경찰병원 아산 유치"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명수 국회의원과 이필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운영 관련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체계, 시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열기 등이 평가에 긍정적 평가를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청 소유 유휴부지라 부지매입이나 교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광역 교통의 중심지로 교통접근성이 뛰어나고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집중수사연구원 등 경찰 관련 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연간 3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전문적인 교육·연구를 위해 방문하는 곳이라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적으로 낙점받았다. 아산시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지로 확정됨에 따라, 경찰청과 아산시는 본격적인 다음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경찰청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충남 아산시와 최종 협상 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마련,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아산시는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센터 지원 TF팀을 가동하고 의료 인프라와 의료인 복지시설 확충



지원에 나선다. 박경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산시는 경찰병원이 추진되는 과정에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경찰병원 건립 예정지 주변을 পুলিশ 메디컬 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주변 개발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이 소개한 계획에 따르면 아산시는 경찰병원 주변 도시개발을 통해 미니 신도시로 만들어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 충청남 간호사 양성제도를 통해 간호 인력을 공급하고, 의료진을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근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국립경찰병원을 환자와 보호자, 경찰 가족을 위한 최고의 심신치유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귀 시장은 "오늘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아산 유치 확정"은 충남과 아산 의료복지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이자, 열악한 의료 인프라에 고통받던 220만 충남도민과 37만 아산시민의 눈물을 닦아준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아산시는 유치 확정 즉시 병원 착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던 만큼,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으로 경찰병원의 착공과 설립, 안정적 운영에 이르기까지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8년 건립 예정인 국립 경찰병원 분원은 응급의학센터와 건강증진센터,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를 갖춘 550병상 규모의 3차 병원으로, 경찰공무원 외에 일반시민도 진료받을 수 있다. 김원호기자

# 청주시, 대설에 '모든 행정력 투입' 제설작업

## 전직원 동원 제설작업 추진

청주시는 13일 올해 첫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사전 제설 작업을 시작해 14일 오전까지 지속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도로와 보행공간 안전 확보에 가장 가능한 전 행정력을 투입했다. 시는 13일 03시부터 눈이 내리자 4개 구청에서 제설장비 31대를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구간 제설작업을 실시했고, 63개 노선 658km 구간에 염화칼슘 103톤, 소금 770톤 등 제설제 873톤을 살포했다. 또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72개 부서 122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밤사이 적설량 6.7cm로 14일 새벽 6시에 청주시 전 직원과 읍·면·동지역 자율제설단 5000여 명을 동원 인도와 마을안길 등을 제설 작업했다.

한편 이른 새벽부터 이법서 청주시장은 전 직원 비상소집 후 옥거리 시장 주변 제설구간과 명암타워 주변 제설상황을 점검했고, 오세동 청주부시장도 사창사거리와 봉명사거리 일원에 제설작업 현장을 찾아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 시장과 오 부시장은 취약구간을 순찰하는 등 대설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24시간 기상 감시 체계를 유지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재난에 강한 안전한 청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 천안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천안시는 '누구나 함께 누리는 직산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2023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누구나 함께 누리는 직산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을 근사리 일원 직산향교, 직산현관아, 온조왕사당 등 지역 내 흩어진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억5000만 원(도비 1억6500만원, 시비 3억8500만원)을 투입해 누구나 함께 직산의 역사문화를 쉽게 찾아 안전하게 접근하고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안내체계, 보행공간, 공공시설물을 개선한다.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유니버설디자인 안내 체계 구축,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소통공간 조성, 쉽고 안전한 접근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시는 2022년 충남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에 이어 2023년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김원호기자



# 옥천형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관광 분야 첫걸음

충북 옥천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브랜드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해 중부권 소규모 마이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이스(MICE)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Exhibition&Event)의 첫 글자를 딴 용어로 컨퍼런스, 전시, 문화 이벤트 등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융·복합 관광산업을 지칭한다. MICE 산업은 4차 산업 시대의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관광 소비 및 소득 증대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군은 마이스 기본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옥천을 상계리 일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40억원을 투자해

2025년 12월까지 중소규모 마이스 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2층 규모(연면적 913㎡)의 센터에는 교육장, 전시실, 가변형 대회의장 등이 포함된다. 마이스 시설은 각종 군의 축제·행사·전시회 등에 활용되며 군민을 포함한 방문객 모두에게 개방된 여가 및 편의, 문화시설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에서는 마이스 센터 신축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본구상 용역,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을 통해 2025년에는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스 센터 신축과 더불어 장령산자연휴양림 대회의실 리모델링 및 권역별 농촌체험마을 회의실 리모델링, 영상 장비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회의실, 숙박 등의 인프라를 구축

하고 지역 내 마이스 시설을 고루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기반 조성 이후 군은 교통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대전, 세종 등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회의, 기업 회의 등을 유치하고, 더불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구읍 문화유산 거리 및 청정 생태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규철 옥천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소규모회의, 스톱미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종전의 대형 컨벤션 센터를 선호하던 기업과 단체들이 최근에는 고유의 지역문화와 특색을 갖춘 유니크 베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군의 마이스 센터는 구읍 문화유산과 연계된, 옥천만의 독특한 매력과 차별화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조성

해 옥천형 유니크베뉴를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남해군 장애인체육회 소속 3인 '경상남도 장애인체육상' 수상 영예

남해군 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및 임원 3명이 지난 12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경상남도 장애인체육상 시상식'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먼저 최종철 사무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며 제25회 경상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탁구종목 단식3위·제25회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탁구종목 단식 1위 등의 성적을 거둔 바 있는 주남식 선수는 경상남도의회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탁구 코치로 활약해 온 전진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장충남 군수(남해군장애인체육회장)는 "올 한해는 남해군장애인체육회와 남해군 장애인체육인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해였고, 내년 장애인 체육이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가 된다"며 "우리 군 장애인 체육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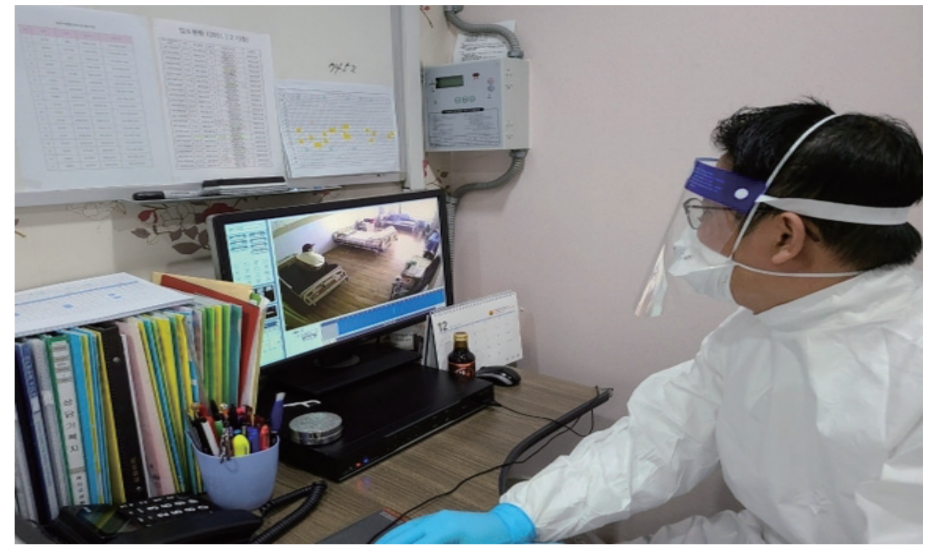
### 오산시, 제1호 역학조사관 김영민 주무관 임명

오산시는 코로나 7차 대유행 및 감염병 위기상황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시 소속 김영민 주무관을 제1호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김영민 역학조사관은 정통 간호학 석·박사 과정을 전공한 의료인이다.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현장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실질적 방역 조치를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1명 이상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기 때문에 이뤄졌다.

김 조서관은 2020년 9월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역학조사관 일반과정 이수를 시작으로, 기본교육(3주) 1회, 지속교육(매 2일) 5회를



비롯해 분기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등 세부기준을 이행하여 역학조사관 과정을 수료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역학조사관

양시현/기자

### 남해군보건소 최민국 주무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최민국 주무관이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2년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에서 'ICT 기반 의료정책 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우수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 주무관은 재할 관련 의료기관이 없는 남해군의 실정을 반영하여 진주한일병원과 원격의료(ICT)협진 협약(19.8.22.)을 통해 남해군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왔다.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재할 관련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했다.

또한 남해군보건소 재활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들이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재활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을 영성적으로 추진했다. 최민국 주무관은 "앞으로도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군민과 공감하는 보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 안동, 적극행정 문화 확산 위한 우수공무원 선발

####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안동시는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공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5명의 직원을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이번 선발에서 건축과 정다영 주무관, 일자리경제과 김지혜 주무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지용 주무관, 평화동 김창현 주무관, 여성가족과 김진희 팀장 등 5명이 최종 선정됐다.

5명의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14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성 △시민체감도 △창의성·전문성 △중요도·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정다영 주무관은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 민원인이 직접 본인의 민원진행상황을 열람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개선 요청 및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 안동시에서 우선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지혜 주무관은 중앙 신시장 장날의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사고 등을 개선하고자 이해관계인의 양해와 동참을 위해 278일간 78회의 끊임없는 소통과정을 거쳐 9월 남문 일원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함으로써 중앙신시장의 외연 확장에 기여했다.

주지용 주무관은 1인가구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최초로 총 15건의 장례에 대해 장례용품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했다.

김창현 주무관은 과거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로 개발됐으나 현재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운안동 일원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사망한 도로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찾아내 수 차례의 연락과 방문으로 설득함으로써 동의

서를 받았다. 이후 해당 주민 34가구의 도시가스 인입 신청서를 받아 시행사에 제출함으로써 2023년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 됐다.

김진희 팀장은 경제적 어려움, 정보격차 등으로 가족 여행이나 체류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 지역자원을 연계해 가족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8월 일주일간 숙박시설 2동을 무료대여 받아 12가구 46명이 1박2일 휴양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가정에는 추억을, 지역사회에는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5명의 직원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근무성적 가점 및 포상금이 지급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적극적,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증평군,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증평군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명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주민의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우수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행정과 우상은 주무관, 우수상은 예산감사관 김기남 주무관이 선정됐다.

우상은 주무관은 '소통공감 행복증평 TF팀'을 구성·운영해 주민과의 양

방향 소통을 활성화했다.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를 통해 생활 속 불편 및 위험 요인 등 141건을 신속하게 제보받아 처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김기남 주무관은 '증평군-37사단(충용부대) 함께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군민의 법적 권익 보호는 물론 37사단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

관내 법률구조공단 같은 상설창구가 없어 비용 등의 문제로 상담받지 못하는 군민 31명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군은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장 수여, 인사상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제작, SNS 홍보 등을 통해 타 시군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www.gy1pick.kr

모바일 고양소식지의 새이름 **고양원픽**

맛한 소식과 정보를 원해? **모바일로 픽해!**

**고양원픽**

GOYANG ONE PICK

고양원픽.kr

고양원픽 홈페이지

### 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공공부문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3일 재정집행 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4분기 소비·투자분야에서 4조 3,898억 원의 재정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는 4분기 집행가능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소비·투자 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각 시·군에서는 재정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4분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목표액은 총 4조 3,898억 원으로 도 4,931억 원, 시·군 3조 8,967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목표액 26조 6천억 원 중 경기도는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추가 집행 가능 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시설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런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정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본청과 시·군 재정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 소비·투자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소비·투자 분야 예산 16조 1,702억 원을 집행해 목표액 15조 3,265억 원을 8,437억 원 초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 결과 경기도를 포함해 양평군, 양주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하남시, 파주시 7개 시·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총 8억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다.

조혜영/기자

# 경남도, 전략산업 대-스타트업 개방형 혁신지원 통해 초격차 스타트업 발굴

## 14일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2022 대-스타 파트너스 성과공유

경상남도는 14일 오전 두산에너지빌리티 게스트하우스에서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인 ‘2022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사업’은 경남도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파트너 대기업인 (주)두산에너지빌리티와 공동으로 스타트업(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서로 연결(매칭)하고, 후속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 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으로 기존산업 혁신과 초격차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사업’은 ‘대기업 과제 해결형’과 ‘스타트업 사업 제안형’ 2개 분야 과제 수행으로 진행했다.

‘대기업 과제 해결형’은 수요기업(두산에너지빌리티)이 제시한 수요기술(내부 해결과제)에 부합하는 신기술, 신제품을 스타트업이 개발하는 방식이고, ‘스타트업 사업 제안형’은 수요기업이 제시한 문제의 범위를 확장



하거나 또는 대기업이 생각하지 못한 혁신기술, 신사업 모델을 스타트업이 제시하면 대기업이 파트너로 협력해 신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크로에코는 10월 두산에너지빌리티와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했고, 창원 문성대 창업보육센터 출신인 새빛광학(대표 박종영)은 오는 12월말 체결 예정이며, 내년

에도 추가적인 용역계약이 기대된다. 신성터보마스터(STM, 대표 박상동)는 경남대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시제품 개발 후 경남지방조달청 제1회 혁신제품 선정을 통해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의 도내 6개 기관에 조달 공급 중이며 두산 협력업체 등록을 통해 두산의 신규사업 참여도 예상된다.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사업은 스타트업의 혁신DNA를 활용하여 기존산업을 대기업과 함께 혁신하는 사업이다”며 “2023년 확대된 경남형 액셀러레이팅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전략산업 대·중견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여 도내 초격차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경상남도 창업지원단장은

### 포항시, 디지털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선도한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차 포항 방문



포항시는 14일 포항 지역벤처(남구 지족동 일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 이강덕 포항시장, 정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디지털 혁신 주요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SW 기업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14일 포항 지역벤처(남구 지족동 일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 이강덕 포항시장, 정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디지털 혁신 주요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SW 기업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 디지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및 기업들과 소통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 현장 연속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포항 방문은 지난 9월 헌남 태풍피해로 인해 당초 9월에서 12월로 연기돼 이뤄졌다. 포항시는 디지털 혁신 인프라로 포스텍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소개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3월 포항에 처음 문을 연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9개월 동안 다양한 카데고리의 앱 프로젝트를 진행해 iOS 전용 앱 70개가 출시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마이핀테크 서비스 해커톤(개발경진대회)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방문단은 교육장소를 둘러보고 수상팀과 멘토 및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창업 인큐베이팅인 체인지업그라운드를 방문했으며, 입주기업인 (주)마이디스H&T, 플라리스3D는 헬스케어 센서제어 기술,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시연해

경북지역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역량을 선보였다. 체인지업그라운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2만 8,000㎡ 규모로 유망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연구·개발(R&D)와 사업 공간, 투자 연계, 사업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포항테크노파크 내 미래

융합센터에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경북 디지털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 간담회에서는 ‘경북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선도기업 및 스타트업 1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디지털 기업인들은 과기정통부의 지역 디지털 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업이 지역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역 디지털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 기업은 △(주)마이디스H&T, 원소소프트다이 (헬스케어) △플라리스3D, 브이스페이스, △유로모터스, 리하이(모빌리티) △캐럿펀트, 브이알코어(VR, AR) △(주)포인트, △스트라드비전(AI영상인식) △해브트리, 감소소프트(스마트제조) △우로테스트(SW교육용) △C&H커뮤니케이션(AI위치인식 기술)이다.

박윤규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지역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상북도도 포항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미래에너지형 자동차·항공기 부품산업, 바이오산업, 에그테크(농업기술) 산업 등이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 반도체에 주목하는 논산시, ‘지식집약’ 산업 육성 파트너십 다각화

### 논산시·건양대·한국펄리스산업협회·반도체공학회 ‘반도체 인력양성 업무협약’ 체결

‘스마트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논산시가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들과 손잡고 지역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쓴다.

시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건양대학교·한국펄리스산업협회·반도체공학회와 ‘반도체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맺고 반도체 관련 산업 인재 발굴·육성에 지혜를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이뤄진 논산시와 건양대 사이의 ‘반도체 분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취업 지원과 교육실습 여건 개선을 뒷받침할 ‘한국펄리스산업협회’와 ‘반도체공학회’를 산업구조 혁신의 파트너로 삼아 관·학·기업 간 거버넌스 구조를 공고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앞으로 4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으로, 특히 디지털 산업의 핵심이자 밀알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 집중해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합심한다는 목표다.

시는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 운영에 따르는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뒷받침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건양대학교는 반도체 교육 영역 전반에 있어 대상 모집, 프로그램 운영, 환경 조성 등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힘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을 위한 시스템 변화의 중심에 논산과 건양대학교, 그리고 귀중한 협약에 나서 주신 한국펄리스산업협회와 반도체공학회가 있다”며 “젊은 청년과 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안고 우리시를 찾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

래 교육을 진일보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용하 건양대학교 총장은 “협약에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훌륭한 반도체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펄리스산업협회는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 이수자에 대해 협회 회원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펄리스산업협회는 106개의 회원사를 둔 사단법인으로 반도체 관련 정부기관과 협업하며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은 물론 창업 컨설턴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반도체공학회는 교육을 수행할 유수의 강사진을 추천하는 동시에 보다 전문적인 실습 과정을 꾸리는 데 협력한다. 반도체공학회는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계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연

구개발(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서규 한국펄리스산업협회장은 “반도체 산업을 혁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인력”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발굴하고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계 발전을 선도할 힘이 생겼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윤식 반도체공학회장장은 “백성현 시장님으로부터 논산이 군수산업의 메카를 표방하고 경주 중임을 들었다”며 “군수산업의 핵심은 IT기술이고 IT기술의 근간은 반도체에 있는 만큼 논산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원호/기자

## 소통과 협업으로 발전하는 무기체계 획득제도...목표는 “혁신”, 핵심은 “속도”

### 『2022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 개최

방위사업청은 12월 14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2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6년에 처음 개최된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는 획득제도의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을 발표·토의하는 행사로, 획득업무 관련 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획득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안보지원실 안기호 위원장, 국방부 김병주 차관,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환영사와 신원식, 김병주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 (이하 ‘KAIST’) 부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 방위사업청의 주요 획득 정책 소개, △ 획득 관련 전문 분야 별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섭 KAIST 부총장은 “First Mover의 도전, 그리고 게임체인저”라는 주제로 국방에 첨단과학기술

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으며,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에서 미래 국방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이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육성을 목표로 첨단 무기체계를 빠르게 군에 도입하기 위한 획득제도의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획득제도 혁신의 주요 방안으로 ① 5년 이내 전력이 가능한 신속획득사업의 도입, ② 민간 기술의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① 계약제도, ② 분석평가/획득지원, ③ 전력화 지원 등 3가지 획득 전문분야에 대해 각 분과별로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계약제도 분과에서는 ‘방위산업 계약분야의 선진국 법제 소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계약제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분석평가/획득지원 분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신뢰성 시험 발전 방안’, ‘계속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변동요인 분석’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전력화 지원 분과에서는 ‘전력화 지



원의 현재와 미래’, ‘통합군수지원체계 요소개발’, ‘원격 정비지원 체계 구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신원식 국회의원은 “우리 안보에 다가올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 획득 프로세스의 혁신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선행과제일 뿐만 아니라 K-방산이 더욱 성장하는 밑거름 역할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K-방산의 우수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위사업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을 위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우리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전투 무기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획득업무가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방위사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일타 스캔들' 전도연X정경호가 만들어갈 달콤쌉싸름한 로맨스!

메인 포스터 공개! 1월 14일(토) 첫 방송 확정!

'일타 스캔들'이 메인 포스터 공개와 함께 오는 2023년 1월 14일로 첫 방송을 확정했다. tvN 새 토요일드라마 '일타 스캔들'(연출 유재원, 극본 양희승, 제작 스튜디오오드레곤)이 전도연과 정경호의 예상치 못한 관계성을 예고하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국가대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전도연과 대한민국 1등 수학 일타강사 정경호의 존재감만으로도 시선을 압도하며 예측 불가능한 두 사람의 로맨스를 향한 기대심리를 더욱 자극한다. '일타 스캔들'은 사교적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국가대표 반찬가게 열혈 사장과 대한민국 수학 일타 강사의 달콤 쌉싸름한 로맨스를 그린다. '고교 처세왕', '오 나의 귀신님' 이후 오랜만에 다시 몽친 유재원 감독과 양희승 작가의 의기투합으로 '로코 치트키' 조합을 완성, 벌써부터 드라마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작품으로 첫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된 전도연과 정경호의 케미 또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핸드블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남행선(전도연 분)과 연봉도, 인기도 탑인 최고의

일타강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 무엇보다 각각의 존재감이 묘하게 어우러져 기대 이상으로 완벽한 비주얼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전도연과 정경호, 두 사람의 로맨스를 향한 기대감은 날이 높아지고 있다. 반찬가게 사장 전도연과 최고의 일타강사 정경호가 내놓는 아우라만으로도 '일타 스캔들'을 향한 궁금증이 치솟게 만드는 가운데 카피 또한 인상적이다. '적중률 100% 그가 풀지 못한 단 하나의 문제'라는 문구만으로도 그 두 사람의 흥미진진한 관계성을 짐작하게 하기 때문. 가족을 위해 '열혈 임시킴'으로 변신을 꾀하는 반찬가게 사장님 남행선과 남 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섬식장애를 겪고 있는 일타강사 최치열.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로맨스로 발전하게 되는지, '일타 스캔들'의 첫 방송이 더욱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tvN 새 토요일드라마 '일타 스캔들'은 2023년 1월 14일 밤 9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스텔라장, 오늘(14일) '투트랙 프로젝트' 4th 음원 '슬픔이 지나간 자리' 발매...따뜻한 울림 선사

싱어송라이터 스틸라장(Stella Jang)이 포근한 위로로 건넨다. 스틸라장이 가창에 참여한 '투트랙 프로젝트'의 네 번째 음원 '슬픔이 지나간 자리'가 14일 오후 3시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투트랙 프로젝트'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작사가 조동희와 작곡가 조동익이 공동 프로듀싱을 맡은 기획으로 하나의 노래를 두 명의 남녀 뮤지션이 각각의 버전으로 선보이는 신규 음악 프로젝트다. 스틸라장이 '슬픔이 지나간 자리'의 여성 뮤지션으로 나서 이승열과는 또다른 위로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는 슬픔을 잊기 위해 잠 속으로 달아나는 것을 '달팽이 잠'에 빗댄 곡으로, 시적이고 서정적인 가사와 스틸라장의 봄처럼 사랑스럽고 포근한 보이스가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함춘호의 기타, 박용준의 피아노 세션이 곡을 한층 풍성하게 채웠으며, 코러스로 참여한 장필순과 스틸라장의 보이스 합이 명품 감성을 놓인다. 스틸라장은 감성적이고 트렌디한 음색을 통해 '슬픔이 지나간 자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한층 묵직하게 표현하며 러스너들의 공감대를 자극한다. 이승열의 '슬픔이 지나간 자리'의 바통을 이어받은 스틸라장은 조동익이 만들어 낸 세련된 감성의 멜로디 라인과 조동희표 맑은 노랫말 위로 감성 보컬을 충실하게 풀어내며 '투트랙 프로젝트' 시즌 1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 음원은 음악 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 중인 문화테크기업 뮤직카우와 함께한다. 뮤직카우는 "따뜻한 겨울 감성을 전할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향후 '투트랙 프로젝트'를 통해 발매되는 음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틸라장의 '슬픔이 지나간 자리'는 14일 오후 3시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최만식/기자

# '재벌집 막내아들' 화제성 지수 4주 연속 1위! 예측 불가 전개 이끈 짜릿한 터닝포인트, 레전드 엔딩 3

'재벌집 막내아들'이 예측 불가의 반전으로 시청자들을 전율케 했다. JTBC 금요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연출 정대운·김상호, 극본 김태희·장은재, 제작 SLL·레몽레인)이 한층 속력을 높인 전개와 함께 2막을 열었다. 진도준(송중기 분)과 진양철(이성민 분)을 노린 의문의 사고는 조작된 것이었고, 이를 알게 된 두 사람은 그 너머의 배후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순간 터져 나온 진양철의 병증은 시청자들마저 경악케 하며 반전 엔딩을 안겼다. 시청자 반응도 폭발적이다. 11회 시청률은 자체 최고인 전국 21.1% 수도권 23.9%를 돌파하며 전 채널 1위를 지켰고, 타깃 2049 시청률 역시 9.7%를 기록하며 전 채널 1위를 이어갔다.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화제성 차트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했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조사한 12월 2주차 TV 화제성 점유율에서 46.7%로 자체 최고점을 기록, 드라마 부문은 물론 예능을 포함한 종합 순위에서도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출연자 화제성 부문 역시 배우 송중기가 1위, 이성민이 2위, 김신욱이 4위, 신현빈이 5위, 박지현이 7위, 김남희가 8위 랭크되며 차트를 '울킬'하는 기염을 토했다. 순양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했지만 결국 서로에게서 자신을 발견하는 진도준과 진양철의 변화는 특별했다. 매순간 다른 온도로 맞부딪치는 이들의 모습은 가족과 적을 넘나드는 한편, 극적인 터닝포인트를 제시했다. 특히, 앞선 전개를 뒤집는 반전에 더해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의 전환을 보여준 엔딩들은 찬사를 이끌어내기 충분했다. 이에 시청자들을 전율케 한 레전드 엔딩의 순간들을 짚어 본다. # '당신의 위기, 나의 기회' 베일 벗은 진도준의 빅 픽처! 인생 2회차 속 역전의 시작 (4회) 순양자동차를 위해 한도제철을 인수하고자 했던 진양철은 관련된 모든 진위를 진영기(윤재문 분)에게 일임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수 금액의 상승은 진영기를 당황케 했고, 그 뒤에는 형을 후계자 위치에서 끌어내리고자 했던 진동기(조한철 분)의 모략이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진영기는 더욱 인수 전에 몰두했다. 마침내 그는 사내 유보금과 대출금 그리고 진화영(김신욱

분)의 도움까지 끌여오는 끝에 한도제철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진도준의 빅 픽처였다. 파워세어즈의 참전으로 일부러 인수 금액을 상향시킨 뒤, 진영기와 진동기의 욕망을 이용해 둘의 싸움에 불을 붙인 것. 그 사이 진도준은 미국의 인터넷 서점에 투자, 거액의 달러를 손에 쥐게 됐다. 여기에 이어진 국가 부도의 소식은 윤현우(송중기 분)부터 이어졌던 공고한 상하 관계를 뒤집는 변곡점이었다. 격변하는 세기말에 펼쳐진 역전의 서막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 진도준VS진양철, 미라클 대주주와 순양의 황제로 만나다! 운명적인 조우의 순간 (6회) 진도준이 한도제철을 순양에게 떠넘긴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아진자동차 인수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전 생에서 순양은 아진자동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고, 그로 인해 윤현우의 집안이 박살 났기 때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생에서 역시 그는 어머니를 잃고 말았다. 이번에는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진양철의 계략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었다. 이에 진도준은 미라클의 이름으로 세서울타운 사업에 뛰어들며 순양의 앞길을 가로막기 시작했다. 분노한 진양철은 검찰을 움직여 미라클 대표 오세현(박혁권 분)을 잡아 들였고, 미라클의 '진짜 주인'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진도준은 자신을 '미라클 대주주'라고 소개하며 진양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진 진도준의 모습은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또한 할아버지와 손자를 벗어난 대등한 조우는 이들 관계가 새로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며 다음 이야기를 더

욱 궁금케 했다. # 진도준X진양철 뒤흔친 살해 위협 → 진양철 섬망 증세 시작?! 승계 싸움에 찾아온 반전 (11회) 자식들 간의 치열한 싸움을 지켜보던 진양철은 차기 순양의 주인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그가 선택한 사람은 진도준이었다. 순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사장 자리에 진도준을 앉히며 이를 공언하려 했던 진양철. 진도준과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던 길, 예상 밖의 사고가 이들을 덮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두 사람은 곧 사고가 조작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다. 진양철은 순양가 안에 배후가 있다고 확신했다. 이에 진도준은 서민영(신현빈 분)의 도움을 받아 범인 추적이 나섰다. 머지않아 범인은 장순진(김남희 분)으로 좁혀졌다. 삼 남매를 의심했던 진양철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뒤이었던 진양철의 눈물에 당황한 진도준. 그것도 잠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방에 진도준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겁에 질려버린 진양철의 모습은 큰 충격을 안겼다. 승계 싸움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판을 뒤집는 반전은 한 지 앞을 모는 전개에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JTBC 금요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12회는 오는 16일(금) 밤 10시 30분 방송 된다. 최만식/기자



# '사장님을 잠금해제' 채종협의 날카로운 눈빛! 채종협 VS 정동환 대립 본격화

'사장님을 잠금해제' 채종협이 열혈 추리 모드에 돌입했다. ENA 수목드라마 '사장님을 잠금해제'(연출 이철하, 극본 김형민,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스튜디오N, 원작 네이버웹툰 '사장님을 잠금해제' (작가 박성현))측은 3회 방송을 앞둔 오늘(14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실버라이닝'의 새로운 사장 박인성(채종협 분)의 아슬아슬한 일상을 공개했다. '실버라이닝' 사장 김선주(박성용 분)는 수상한 사건에 휘말려 스마트폰에 갇히게 된다. 그가 갇힌 스마트폰을 우연히 습득하게 된 박인성은 '실버라이닝' 사장으로 잠입,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김선주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주일은 변수로 남아있고, 스마트폰이 자신의 것이라는 발신자 제한 문자는 혼란을 불러왔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숨겨진 움직이는 박인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무엇을 찾는 것인지 고개를 빼고 내밀고 이리저리 살피는 박인성. 이내 미화원들에게 들켜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다. 열혈 추리 모먼트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문자 발신의 범인 색출을 위해 나선 박인성. 포스트잇이 붙여진 직

원들의 스마트폰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뜨거운 취재 열기 속 박인성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는 '실버라이닝'이 눈엣가시인 범영 그룹 오영근(정동환 분) 부회장의 감쪽 선물. 쏟아지는 질문 공세 속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박인성. 그리고 이를 예의주시하는 오영근 부회장과 그의 심복 곽삼수(김병춘 분) 상무의 대립이 긴장감을 자아낸다. 과연 박인성은 정체 타로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14일) 방송되는 3회에서는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한 박인성과 김선주의 하이브리드 공조가 본격적으로 그려진다. 행방불명된 김선주가 새로운 사장으로 박인성을 지목, 김선주를 위협한 세력에게도 변수가 생겼다. 그들의 포리를 밝히기 위한 박인성의 활약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장님을 잠금해제' 제작진은 "'실버라이닝' 내부에 있는 김선주의 적군과 아군을 밝혀내기 위한 박인성의 고군분투가 흥미진진하게 그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ENA 수목드라마 '사장님을 잠금해제' 3회는 오늘(14일) 밤 9시 ENA에서 방송된다. 황지원/기자



장민호, '인기가요' 핫 스테이지 1위! '풍악을 울려라! 무대로 팬심 저격



가수 장민호가 '인기가요' 1164회 핫 스테이지 1위에 선정됐다. 장민호는 지난 4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풍악을 울려라!' 무대를 선보였다. 장민호는 이날 방송에서 국악과 트로트가 조화된 노래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흥을 유발했다. 특히 신나는 멜로디와 어우러진 퍼포먼스가 눈을 땔 수 없게 했고, 장민호의 노련한 내공이 무대를 풍성하게 채워 감탄을 자아냈다. 방송 이후 4일간 SBS 인기가요 공식 투표앱 '프리보트'에서 핫 스테이지 1위 주인공 투표가 이어졌고, 가장 멋진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를 선보인 아티스트로 장민호가 선정됐다. 특히 팬 투표 100%로 결정되는 핫 스테이지 투표인만큼 장민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한편 장민호는 현재 단독 콘서트 '호시절' 好時節을 진행하며 팬들과 만나고 있다. 대구, 광주, 성남, 부산 공연을 마쳤으며, 오는 24-25일 창원, 내년 1월 28-29일 인천 공연을 앞두고 있다. 정동희/기자



## 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월 최대 200만 원 지급

올해 운영결과, 지난달까지 총 2,486,794건의 불법광고물 정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

양천구는 주민참여 중심의 불법광고물 근절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12월 16일부터 주민 참여자 5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명함 등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2,486,79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이중 첨지류(벽보, 전단지)의 정비건수가 2,484,6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은 2,123건이 정비됐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현수막은 2천 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 원이며, 첨지류는 벽보 및 유해명함 등 100매당 2~5천 원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월 2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 원 이내이다.

참여자격은 만 20세 이상 양천구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



라를 소지하고 촬영이 가능한 자로,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활용(현수막 참여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구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동별로 3명씩 선발하며, 참여희망자는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

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돼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기에 양천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 경남도, 불법행위 업소 11곳 적발

‘디저트류 판매업체 위생 빨간불’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마카롱, 레터링케이크와 같은 디저트류 판매업체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능 등 특정시기에 소비가 많은 마카롱, 레터링케이크 등 도내 디저트류 판매업체 등 44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 5건 ▲한글 표시사항 없는 식품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영업준수사항 위반 3건 등 총 11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단속과 함께 마카롱, 레터링케이크 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업소 중 A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18종류의 식품을 냉창고 등에 보관 및 일부 사용하여 마카롱을 제조·판매했으며, 도 특사경은 이와 같



은 유형의 업체 5개소를 적발했다.

B업소는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인 봉어빵의 원재료(밀반죽, 팔안금, 슈크림)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여 도내 13곳에 판매하고 있었다.

C업소는 마카롱에 알록달록한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지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색소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으며, 이를 사용해 만든 마카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디저트류 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식품첨가물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인 업체 차원에서 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확보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소비 풍조에 맞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 용인특례시, 3월까지 미세먼지와 전쟁 벌인다

계절관리제 세부계획 수립,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28㎍/㎥ 달성

용인특례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량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 주요 오염배출원 감축에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평소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첫 도입됐다.

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계획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 28 μg/m³ 달성을 목표로 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용인시 평균 초미세먼지는 29 μg/m³로 기록됐다.

계획의 핵심 전략은 '배출원 감축'과 '건강보호', '농촌지역 중점 관리' 등 세 가지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받아 수송부문과 산업부문, 생활주변 배출저감,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부서협력 강화 등 5대 부문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이어가고 고농도 비상 발령 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해나간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과 장비 확충하는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23개부서로 구성된 계절관리제 T/F팀을 운영, 농업지역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협업해나간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실천방안을 수립했다"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음성군·음성경찰서·교통안전공단,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벌여

음성군과 음성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이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군은 13일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금양읍과 충북혁신도시 일원에서 하반기 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 ▲전조등 임의 개조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또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저지) ▲무단 방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범죄에 악용돼 주민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차량 또한 단속 대상이다.

김태홍 건설교통과장은 "겨울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 점검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불법 튜닝은 임시검사 명령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원상복구 명령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려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서울 중구, 금연구역 4곳 추가 지정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정동길, 남산티타워, 부영빌딩 등 4곳 신규 및 추가 지정



서울 중구가 금연구역 네 곳을 추가 지정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은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퇴계로 235) ▲정동길(정동 2~정동길 46) ▲남산티타워 앞 도로(소월로2길 30) ▲부영빌딩 인접 도로(계동로9길 42)이다. 올해 말까지 제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하고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 민원 조수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시간당 50명 이

상 흡연자가 모여들고, 흡연자들이 보행로를 점유하여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곳을 우선 고려하여 금연구역 지정 결정했다.

이후 7월부터 10월 말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금연홍보 캠페인도 실시했다. 흡연단속원과 금연 지도원 14명이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과태료 부과 개시일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흡연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금연

클리닉 이용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내년 1월부터는 중구에 모두 38개의 금연구역이 생긴다. 학교·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을 모두 합한 금연구역 수는 1만 2천여 개에 이른다.

김길성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 확대, 적극적인 금연 교육 등으로 서울 시민의 흡연율이 1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중구도 지속적인 금연 정책 시행으로 구민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불법사항 적발

울산시 울주군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수집·운반업체를 적발해 사법처분을 진행 중이다라고 13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울산 외 타 지자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A업체는 지난 10월께 울주군 내 학교와 병원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22곳과 총 1천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해왔다.

그러나 울주군 조사 결과, A업체는 10월 한 달간 해당 사업장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57t 중 31%인 17.9t만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B업체에 운반했다. 나머지 폐기물은 처리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서상에는 A업체가 음식물류폐기물 운반비와 처리비를 모두 받은 후 폐기물을 B업체로 운반하며, B업체가 처리한 물량만큼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군은 A업체가 B업체에게 운반해야 할 음식물류폐기물을 빼돌려 처리비가 비교적 저렴한 가축농가에 먹이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당시에는 비현실적인 저가의 단가를 제시해 우선 계약을 체결한 뒤 배출사업장이 수집·운반업체에게 운반비와 처리비를 함께 지급하는 방식을 약속해 불법으로 수익을 낸 것이다.

이처럼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관할 당국의 관

리가 어렵고, 불법 처리 과정에서 악취,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A업체는 허가를 받은 타 지자체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에 운반비와 처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음식물류폐기물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대전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질주, '우리는 달린다 WWW' 개최

## 12월 16일부터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기획전 개막

대전시립미술관(관장 선승혜)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2월 5일 까지 대전창작센터에서 《우리는 달린다 WWW》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인류의 성장과정과 정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예술적 사유를 담는다.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은 "우리는 세계로 달린다. 우리가 맨 앞이다." '더 나은 미래(A Better Future)'의 '모두를 위한 문화 (Culture for All)'를 실현하는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 꿈이 도전하는 인류의 질주를 공감문화로 나누고 응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달린다 WWW》는 방대한 기획과 위기가 공존하는 동시대의 초상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상, 더 나은 미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달리고자 하는 인류에 대한 추모이자 응원이다.

전시는 자본, 권력, 미디어 등 동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는 현대미술작가 6인의 작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며 성장과 도전을 거듭 해 온 도시의 단상을 그려낸다.

김인은 회화에 있어서 대중적 이미지를 대상으로 차용, 대립하는 존재 간의 공존을 고민한다. 'Dark side of the moon'은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의 발사를 구경하는 미국 시민들을 그린 군집회화이다. 작가는 1960년대 당시 한국과 이미 인류를 달에 보낸 미국과의 시대적인 괴리감과 박탈감을 그려냄으로써 자본과 권력으로 점철된 세계와 이를 둘러싼 시대적 철학을 고찰한다.

박준범은 촉발하는 도시공간의 일상생활이라는 문제는 '손의 개입'으로 대변 되는 힘의 행사가 어떻게 미시적으로 작동하고 새로운 관계성을 생성하는가를 고민한다. 'Hypermarket' 속 거대한 손은 건물을 세우고 차와 사람의 움직임을 제어시키며 도시 구조 속에서 그것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조를 이야기 한다.

김세진의 'Hana set'는 서구식 '합리적' 노동 분업 방식으로 도식이 만들어진다는 반복적인 과정을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담아낸다. 그에게 애니메이션은 그 과정과 방식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과 유사한 것인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노동의 의미와 삶의 관계를 드러낸다.



▲ 김인 'Dark side of the moon'

박지혜는 우리 주변에 산재해있는 공간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숨겨져있는 감정들과 공간들이 관계를 맺는 맥락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조명한다. 아카이브를 통해 역사를 되짚어보거나 정치적, 사회적 쟁점들을 부각시키는 다른 작가들과는 대조적으로 대상 장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경험하고 관찰함으로써 현재성에 주목,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영상을 만든다.

노순택은 '리얼리스트 저널리즘 포토그래피'로서 2000년대 이후 정치리얼리즘 사진이 갖는 특징, 즉 현실을 거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증거한다. '비상국가' 연작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약 9년에 걸쳐 작업한 것으로, 한 장소의 정치적 상황을 담아내기보다는 우리 삶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위기와 슬픔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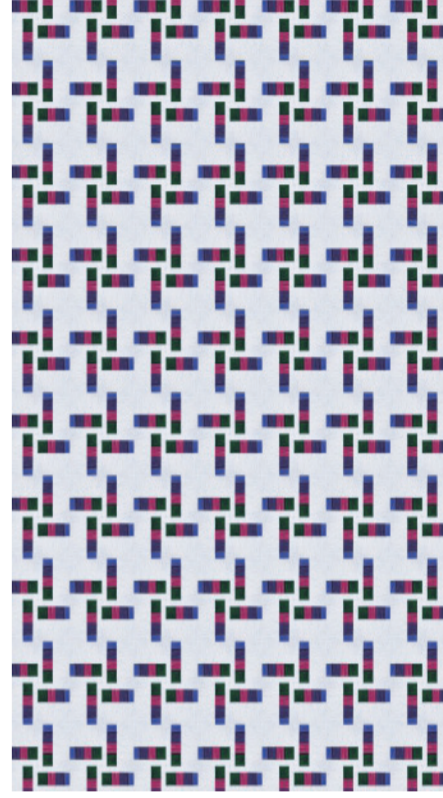
석성석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매체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재현 방식에 질문을 던진다. '잡음상자-전자초상 불. 2'는 원본 정보가 왜곡되어 본래의 가치와 내용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잡음(noise)의 형태에서 새로운 디지털 미학의 가치를 경험하게 한다.

전시 연계 워크숍 '미래 희망 거래소'에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를 사고 팔 수 있다. 전시에서 만난 쓸쓸한 도시의 단상들이 비록 오늘의 모습이라더라도 새로운 내일에 가는 기대와 희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시를 기획한 우리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는 단순히 시각적인 개념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시 자체가 메시지이자 의제의 발화이며 예술적 실천이 되어 인류의 내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김원호기자

## 고성문화재단, '고성 가는 길' 전시회 개최



▲ 양순영 작가 작품

고성문화재단은 오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달출문화센터 1층에서 '고성 가는 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성 가는 길'은 강원도 고성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7번국도 변 도시를 재해석하는 전시회로 고성 이 첫 번째 대상지이다.

전시를 주관하는 '7번국도 갤러리'는 지난 2021년 '강릉 바다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전시를 치뤘고, 올해는 두 번째 프로젝트로 '우리의 삶에서 고성 바다와 지역주민이 미치는 영향과 고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제로 프로젝트 작품을 발표한다.

참여작가는 허정원, 권승연, 김성목, 염준호, 박진주, 박호용, 방경혜, 배철, 조동선, 양순영 작가이며, 이들 작가는 고성의 전반적인 환경과 역사, 인문 주제를 리서치한 결과를 전시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고성재발견' 시리즈의 일환으로 7번국도를 예술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2023년에는 예술가의 창의적 활동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필기자

##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극단이 모집하는 두 번째 희곡공모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극단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연극 장르 활성화에 기여하고, 극작가의 창작여건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창작희곡공모전>을 진행한다. 접수는 2023년 1월 2일 ~ 1월 17일까지다. 시대를 반영하는 우수 창작희곡 작품을 발굴하여, 세롭고 다양한 소재의 창작극 활성화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신진 및 기성작가 누구나 참가 가능한 이번 <2023년 창작희곡공모전>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작가적 상상력을 기대하며, 시대의 요구와 관객의 요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창작희곡을 기다리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22일(수)에 당선작 1편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극단이 지난 2020년 처음 진행한 <2020년 창작희곡공모전>에는 총 111편의 작품이 공모되었고, 박진희 작가의 '위대한 배'가 대상을 수상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을 담아낸 '위대한 배'는 경기도극단 한태숙 예술감독의 연출로 제작되어 2021년 11월 18일 ~ 11월 28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2021년 레퍼토리 시즌" 작품으로 많은 관객들 만났다.

<2023년 창작희곡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http://www.ggac.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 안동시, '위대한 시민과 함께하는 2023 계묘년 새해 해맞이' 진행

참여자 사전 신청 접수 2022.12.12.(월)~12.28.(수), 안전 최우선

안동시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토끼의 해"를 맞아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위대한 시민과 함께하는 2023 계묘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2023년 1월 1일(일) 7시 안동국제컨벤션센터(옥상정원)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해맞이 행사는 기존 틀을 전면 개편해 '위대한 시민과 함께하는 2023 계묘년 새해 해맞이'로 새롭게 마련했다. 국제 마이스 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안동의 발전과 모든 시민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해맞이를 진행한다.

새해 첫날,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성악 앙상블과 전통국악 식전공연으로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해맞이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주고받고, '토끼해'에 출생한 시민들과 2023년 '대박 터트리기 행사'도 진행한다.

만복을 기원하는 성주풀이 형태의 퓨전타악공연이 피날레를 장식하고 참석자들은 신명나는 풍물 장단을 즐기며 행복으로 깃들 한해를 기원한다.

또한, 2023년 새해 소망을 소원지에 작성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작성

된 소원지는 내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액운을 날리고 소원 성취와 복을 기원하는 이벤트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2월 28일까지 사전에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한다. 이벤트를 통해 12월 28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증빙을 한 자, 또는 주민등록상 토끼띠 출생자에게 안동 눈빛축제(22.12.16.~ 23.1.24)의 대형 눈썰매장 이용권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념품은 선착순 500명에게만 제공하므로 기간 내 빨리 신청해야 한다.

이번 해맞이 행사 이벤트를 통해 지역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안동사랑상품권도 구입하고, 안동눈빛축제의 눈썰매 이용권도 받음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해맞이 행사는 미연의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알찬 프로그램 구성으로 2023년 새해를 뜻깊게 시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수험생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행복한 콘서트 개최



### 경북교육청과 KBS안동이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KBS안동 공개홀에서 수험생과 함께 바쁘게 1년을 보낸 수험생 가족들을 위한 '경북교육청과 KBS안동이 함께하는 행복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3일 상주와 영연에서 열린 행복콘서트에 이어 세 번

째로 안동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KBS 박소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허각, 김나영, 전건호, 경서예지, CLASS:y(클라씨), 닥펍스 등 가창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수준 높은 음악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번 안동 행복콘서트에는 수험생 1인에게 티켓 2매를 배부해 가족과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평소 지방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아이돌 그룹과 인기 가수들의 음악공연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며 그동안 수능과 시험으로 인해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냈다.

임종식 교육감은 "수험생과 가족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양질의 문화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내년도 지역별로 행복콘서트를 개최해 학생들의 예술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주문화재단 문화로운 사파리, 올해의 탐험 모두 마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지식공유포럼 [문화로운 사파리]가 13일 동부창고 카페C에서 진행한 행사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탐험을 모두 마쳤다.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강제영 예술감독을 발제자로 한 이날 탐험에서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이고 오래된 '지적 설계'이자 '문명의 역사'이며 모두를 위한 가장 친숙한 예술인 공예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날 처음 공개된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대국민 캠페인 '세살스러운 공예'에 담긴 의미와 진행 방법이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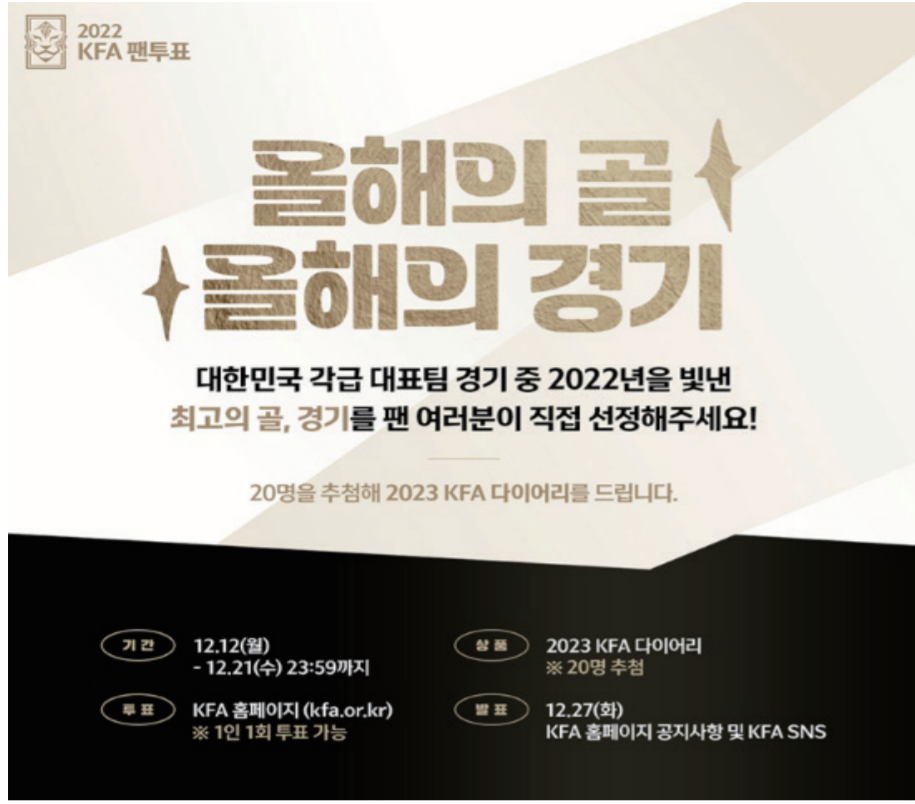
'세살스러운 공예'는 보수가 필요한 난만의 소중한 공예품을 각 분야의 공예가가 직접 수리·수선하고, 쓰임을 다한 물건을 공예적인 기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공예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새 삶을 선사해주는 캠페인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캠페인료를 맞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세 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문화로운 사파리] 여정을 모두 마친 청주문화재단은 2023년 새해 새로운 탐험으로 돌아올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올해의 골’과 ‘올해의 경기’ 팬 투표 실시



2022 KFA 팬투표

# 올해의 골

# 올해의 경기

대한민국 각급 대표팀 경기 중 2022년을 빛낸 최고의 골, 경기를 팬 여러분이 직접 선정해주세요!

20명을 추천해 2023 KFA 다이아리를 드립니다.

기간	12.12(월) - 12.21(수) 23:59까지	상금	2023 KFA 다이아리 ※ 20명 추첨
투표	KFA 홈페이지 (kfa.or.kr) ※ 1인 1회 투표 가능	발표	12.27(화) KFA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KFA SNS

올해 나온 가장 멋진 골, 최고의 경기는 무엇일까? 대한축구협회는 2022년에 열린 축구대표팀 경기를 대상으로 가장 멋진 골과 최고의 경기를 선정하는 팬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는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www.kfa.or.kr)에 접속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한번만 투표가 가능하다. 최종 결과가 27일 발표된다. 투표에 참여한 팬들을 대상으로 20명을 추첨해 내년도 대한축구협회 다이아리를 선물한다. ‘올해의 골’ 후보는 모두 9개다. 조규성의 가나전 다이빙 헤더골, 황희찬의 포르투갈전 역전 결승골, 백승호가 브라질전에서 터뜨린 원발 중거리 골까지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온 골이 3개 포함돼 있다. 또 손흥민이 자신의 100번째 A매치였던 칠레전에서 성공시킨 멋진 프리킥 골, 브라질과의 친선경기에서 나온 황의조 터닝슛 골도 있다. 이외에도 여자대표팀 지소연이 아시안컵 호주전에서 만들어낸 원더골, 최유리의 동아시아컵 중국전 골, 올림픽대표팀 조현택의 원발 프리킥골, 여자 U-20 월드컵에서 문하연이 터

뜨린 헤더골도 후보에 올라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경기를 뽑는 ‘올해의 경기’ 후보는 8개다. 온 국민들을 열광케한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2-1 승), 이란을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월드컵 최종예선 홈경기(2-0 승),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은 시리아전(2-0 승)이 후보에 올랐다. 2002 월드컵 20주년을 맞아 뜨거운 열기속에 6월에 열린 국가대표팀의 세차례 친선경기(칠레, 이집트, 파라과이전)도 포함돼 있다. 또 여자대표팀 경기로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낸 아시안컵 호주전(1-0 승)과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여자 U-20 월드컵에서 캐나다에 승리(2-0 승)를 거둔 경기가 들어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실시하는 ‘올해의 골’과 ‘올해의 경기’ 팬 투표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손흥민이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 원정경기에서 터뜨린 선제골이 ‘올해의 골’로 뽑혔다. 또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관중 입장이 전면 허용된 상태에서 화끈한 공격축구로 팬들을 매료시킨 월드컵 최종예선 홈경기 UAE전이 ‘올해의 경기’로 선정된 바 있다. 최만식기자

여자대표팀, 내년 월드컵 베이스 캠프 확정

내년 7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2023 FIFA 여자 월드컵에 참가할 한국 여자대표팀의 베이스 캠프가 정해졌다. FIFA는 12일 대회 참가국의 베이스 캠프를 발표하면서, 호주 시드니 인근의 캠벨타운에 마련된 호텔과 훈련장을 한국 팀의 베이스 캠프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태극남자들이 묵을 숙소는 리지스 캠벨타운(Rydgcs Campbell Town) 호텔이며, 훈련장은 캠벨타운 경기장이다. 베이스 캠프는 각국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FIFA가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조추첨 직후 대한축구협회는 폴린 벨 감독과 함께 시드니 5곳, 브리즈번 3곳의 베이스 캠프 실사를 진행했다. 호텔과 훈련장 시설, 교통,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드니에서 가까운 캠벨타운을 1순위 후보로 신청했다. 다행히 우리 대표팀이 원하는 베이스 캠프가 지정됐다. 한국의 베이스 캠프가 마련되는 캠

벨타운은 시드니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다. 6층 건물의 숙소 호텔에는 팀 조리가사 출입할 수 있는 주방이 따로 있으며, 수영장과 헬스센터 등 컨디션 회복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마련돼 있다. 호텔 주변에는 카페, 식당, 쇼핑물이 있어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훈련장으로 쓰일 캠벨타운 스타디움은 숙소에서 4km 떨어져 있으며, 차로 10분만에 갈 수 있다. 현재 공식 축구 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설도 우수한 편이다. 한편, 여자대표팀은 내년 7월 25일 시드니에서 콜롬비아를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갖는다. 이어 30일 에드레이드에서 모로코와 2차전을 벌이고, 8월 3일 브리즈번에서 독일과 3차전을 치른다. 캠벨타운에 마련된 베이스 캠프에서 훈련을 하다가 경기를 앞두고 개최 도시로 이동해 경기를 치른 다음,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동희기자



정몽규 회장, 축구대표팀 추가포상금으로 20억 기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축구 대표팀을 위해 거액의 포상금을 기부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위해 20억원의 추가 포상금을 별도로 기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정 회장이 기부한 포상금 20억원을 26명 선수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의 카타르 월드컵 참가국 배당금 기준에 따라 16강에 진출한 한국은 약 170억원(1,300만 달러)의 배당금을 받게 됨에 따라 당초 선수단 포상금을 총 배당금의 50% 이상 지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에 참가한 선수단 포상금은 월드컵 본선진출과 월드컵 본선을 합쳐 총 11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규모는 16강 진출 국가들과 비교하여 최대 지급 규모이다. 이로써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5월 협회 이사회가 정한 카타르 월드컵 성적에 따른 포상금과 아시아 최종 예선 통과 이후 기여도에 따라 받은 포상금까지 포함하여 받게 됐던 개인당 최소 2억 1천만원에서 최대 2억 7천만원에 추가로 약 7천여만 원씩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금번 선수들의 포상금은 개인당 최소 2억 8천만원에서 최대 총 3억 4천만원에 이르게 된다. 정몽규 회장은 “베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로 한국 축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축구팬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며 “축구협회

가 기존에 책정한 포상금 외에 협회 장으로서 선수단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어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18년에도 대표팀의 외국인 코칭 스태프 연봉 지급 등 축구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4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최광수기자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게 감사패 전달

대한축구협회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뤄낸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게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12일 저녁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을 비롯해 6명의 코치진(세르지우 코스타 수석코치, 펠리페 쿠엘루 코치, 김영민 코치, 최태욱 코치, 비토르 실베스트레 GK코치, 페드로 페레이라 피지컬코치)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했다. 정몽규 회장은 대표팀 코칭스태프에게 일일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활약과 코칭 스태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 최만식기자

대한민국의 통산 세 번째이자 원정 두 번째 16강 진출을 이뤄낸 벤투 감독과 코치진은 이날 만찬으로 모든 국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 2018년 8월 부임한 벤투 감독은 4년 4개월 동안 57경기를 치르면서 35승 13무 9패(승률 61.4%)를 기록했다. 그는 대표팀 역사상 최초로 중도 교체 없이 4년 동안 월드컵을 준비한 감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강호들을 상대로도 능동적인 축구를 선보이며 16강 진출을 이끌어냈다.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벤투 감독은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고국 포르투갈로 돌아간다. 최만식기자



KPGA, 2022년 경기위원 세미나 개최... “공정하고 원활한 경기 운영에 힘쓸 것”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KPGA)가 ‘2022 KPGA 경기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13일 경기 용인 소재 한화 드림파크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번 KPGA 경기위원 세미나는 경기위원의 역할과 임무 교육과 2022 시즌을 돌이켜 보고 KPGA 주관 대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KPGA 권정원(67) 경기위원장은 “2022 시즌을 함께한 경기위원들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지난 시즌을 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팀워크를 한층 강화했다”며 “공정성

과 원활한 경기 운영으로 선수들과 팬들에게 강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GA는 지난 2월 2022~2023 시즌 경기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경기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중앙 경기위원이 KPGA 코리아투어와 KPGA 챔피언스투어, 46명의 지역 경기위원이 스피릿투어와 각 급 투어의 지역 예선전 및 회원 선발전에서 경기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올해는 경기위원회 구성에 앞서 경기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 4개월 간의 경기위원회 개편 TFT를 꾸려 경

기위원회의 선발 및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하기도 했다. 역대 최초로 경기위원장과 경기위원 모두 서류 평가, 골프 규칙 테스트, 심층 개별 면접 등의 엄격한 전형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KGT 김병준 대표이사는 “KPGA 코리아투어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선수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규격의 코스 세팅이 필요하다”며 “선수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전략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호쾌한 장타와 역동적인 샷

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코스 세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대회 현장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 자리가 2023년 KPGA의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KPGA 경기위원 세미나에서는 2022 시즌 ‘올해의 경기위원’으로 선정된 KPGA 한덕일(65) 지역 경기위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정동희기자

대한축구협회 내년 예산은 1,581억원

대한축구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가 책정한 2023년 대한축구협회 예산은 1,581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1,141억원보다 44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대한축구협회 예산 규모 중 가장 많다. 지금까지 최대는 지난 2013년의 1,234억원이었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2024년 천안에 들어설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 수입 중에는 공식 파트너 기업의 후원금과 A매치 수익, FIFA 배당금 등 협회가 직접 벌어들이는 자체 수입이 887억원으로 가장 많다. 스포츠도토 자금 수입 220억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지출 항목에서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이 51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급 대표팀 운영비 325억원과 국내 대회 운영비 269억원이 그 뒤를 잇는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새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일정도 보고됐다. 감독 선임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합한 지도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달 안에 선임 기준을 확정한 후 1차 후보군을 추천하는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최종 후보군을 선정함과 동시에 후보자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해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2월에는 우선 협상 대상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개별 협상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감독을 선임하기로 했다. 최광수기자



# 영양 들어다보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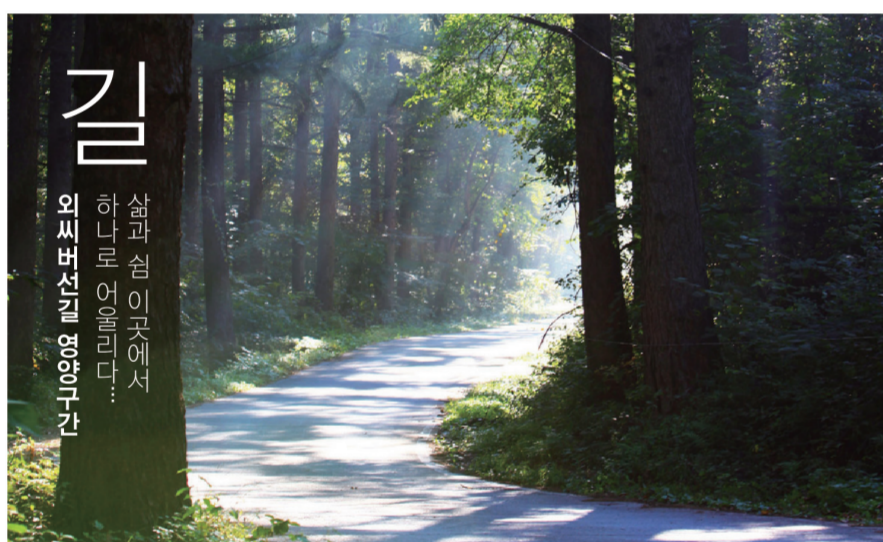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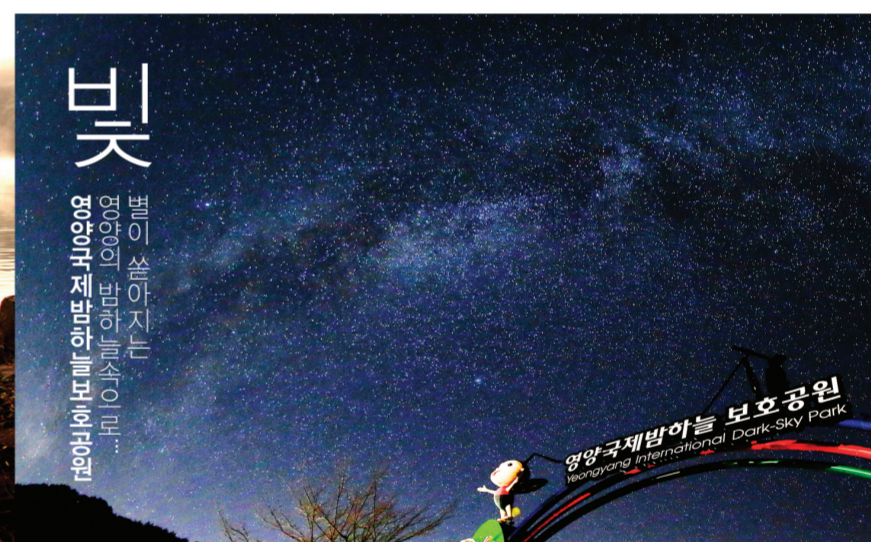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영이  
영양이 영영이 영영이



**물**  
영양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밤하늘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얼**  
시공간의 대가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영이 영영이 영영이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